

林 炳 玉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古代 中國 儒家의 音樂思想 研究

— 孔子의 禮樂思想을 中心으로 —

2004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音樂教育專攻

李 慧 璟

論 文 概 要

본 논문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 가능한 孔子 사상에 대하여 종래에 철학 쪽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치우쳐 연구되어온 것과는 달리 音樂論 쪽에서 접근하여 연구 탐색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해서 孔子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가히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을 연암 박지원은 ‘옛것을 모범으로 삼아 새 것을 창조하는 것’(法故創新)이라고 주장하였고, 중국에서는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 미래의 스승이 된다’(前事不忘 後事之師)라고 하였다. 이 말들은 모두 비슷한 말들이라고 본다. 그런데 옛 것을 익힌다고 모두 새 것을 알고 창조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 속에서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儒家의 音樂思想 즉 孔子의 音樂思想이 서양 음악사상에 밀려 소외되고 거의 잊혀져 간 사실을 기억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재해석하고 창의적인 음악사상 또는 음악교육의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孔子의 禮樂思想을 연구하였다.

인간은 知·情·意가 고루 갖추어진 조화로운 인간이어야 하며, 이는 곧 全人教育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은 사람으로 하여금 음악을 느낄 줄 알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위주의 교육인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孔子는 뛰어난 음악 교육자였다고 본다. 孔子의 음악교육은 한마디로 全人教育이었다. 그는 『論語』를 통해서 “詩에서 감흥을 일으키고, 禮에서 행동규범을 세우고, 樂에서 인간을 완성한다(興於詩 立於禮 成於樂)”라고 하여 인격완성의 최종단계를 樂에 두어 樂으로써 全人Education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결

국 인간은 樂으로써 완성된다는 사상이다.

이와 같이 孔子는 음악을 인격 형성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중시하는 가운데 樂을 仁의 具現態로 인식하였으며, 나아가 樂이 情緒陶冶를 통한 善한 인간형성과 德性 함양을 위한 교육, 나아가 사회적·국가적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인간형성의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효용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필자가 본 논문의 제Ⅱ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儒家 樂論의 사상적 배경과 禮樂思想에서의 禮와 樂의 상호관계를 고찰하였다. 제Ⅲ장에서는 孔子의 音樂的 審美觀을 감상과 비평, 연주를 통해서 검토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孔子의 音樂觀을 詩와 禮, 樂으로서의 和, 美의 표현인 樂과 善의 실현인 仁의 통일적 측면과 藝術적 境界에 대하여 論考하여 보았다. 끝으로 제Ⅴ장에서는 道德的, 政治的 教化로서의 음악교육과 정서의 순화와 인격 완성인 「成於樂」의 경지의 음악교육관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의 음악사상을 통해 非人間的이고 非道德的인 현대 산업 사회에서 상실되었던 인간성 회복과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孔子가 음악을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있어서도 충분한 음악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孔子의 禮樂思想에 관한 연구는 부진했던 것 같다. 앞으로 孔子의 음악적 측면의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目 次

論 文 概 要

I. 序 論	1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1
2. 研究의 方法 및 範圍	2
II. 孔子 音樂思想의 基底와 背景	5
1. 儒家 樂論의 思想的 背景	5
2. 禮樂思想에서의 禮와 樂의 考察	8
III. 孔子의 音樂的 審美觀	15
1. 感想과 批評	15
2. 演奏	18
IV. 孔子의 音樂觀	24
1. 詩와 樂	24
2. 禮와 樂	26
3. 樂의 中和美	30
4. 仁과 樂	34
5. <游於藝>의 境地	38

V. 孔子的 音樂教育觀	42
1. 樂의 教育的 內容의 概觀	42
2. 道德的 教化로서의 音樂教育	44
3. 政治的 教化로서의 音樂教育	49
4. 人格完成으로서의 音樂教育	58
VI. 結 論	61

參 考 文 獻

ABSTRACT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오늘날 한국의 음악 현실은 서구의 예술사조나 가치관 등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우리 고유의 음악 예술 전반이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악의 가치판단 문제에 있어 다양하게 뒤엉켜 혼재하는 서구의 음악 사상들에 밀려 소외되고 등한시되는 우리 전통 음악사상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며 우리의 예술 사상을 형성하는 원천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접근해 볼 때, 그 사고적 뿌리를 고대 중국 음악 사상을 통해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고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문명의 하나로서 일찍부터 예술이 발달했으며 특히 음악의 발달이 앞서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국과 우리 한민족은 문화를 공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리적으로 인근 국가이었으므로 상호 내왕이 빈번하였으며 유교 전통 및 역사적, 정신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고대 중국의 음악 사상은 크게 儒家와 道家의 음악사상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중국 고대 음악미학사상의 주류는 儒家의 禮樂思想이라고 귀납할 수 있다. 禮樂思想은 유가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논제로서 儒家의 音樂思想은 기본적으로 孔子의 音樂思想을 그 바탕으로 성립되며¹⁾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고대의 음악이 孔子에 이르러 비로써 음악 최고의 예술가치에 대한 자각이 생겼고, 최고 예술 가치의 자각 중에 「인생을 위한 예술」이라는 典型을 건립했

1) 梁勝姬, 樂記 樂理思想의 哲學的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2), p.61.

다고 하였다.²⁾

樂에 대응하여 禮를 형성하여 상대관계 속에서 서로 발달을 보게 된 것은 중국 민족의 특색이다.³⁾ 禮樂은 중국 문화의 큰 특징일 뿐만 아니라 儒家思想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禮와 樂을 연결시켜 하나의 전문적인 명사로 만들어 그것을 並稱하고 아울러 그것을 가지고 철학과 미학의 사상체계를 이룬 것은 孔子이다. 孔子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禮樂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처음으로 이론화, 체계화 및 합리화한 것이며 그 이후 유학의 발판이 되었음에 주목하여 이에 중국 유가 음악사상의 정초라 할 수 있는 孔子의 禮樂思想을 연구하는 것은 유교 전통과 관련하여 오늘날 전통 음악으로서의 우리 국악에 대한 심미의식과 정체성을 추구하고 조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새로운 21C를 맞이하여 우리의 핏속에 흐르는 동양의 음악사상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창의적인 음악사상 또는 현대 음악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분석해 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研究의 方法 및 範圍

孔子의 音樂思想에 대한 연구를 시도함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점은 방법론의 문제로 본다. 그 동안 孔子 禮樂思想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⁴⁾ 禮樂

2) 徐復觀, 『中國藝術精神』, 權德周 譯 (서울: 東文選, 1990), p.4.

3) 李相殷, 儒家의 禮樂思想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0), p.4.

4) 李相殷, 儒家의 禮樂思想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0).

朴駱圭, 古代 中國의 禮樂思想 (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3).

鄭台喜, 孔子의 藝術精神에 關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大田大學校 大學院 1990) 등.

의 예술적 본질로서의 음악 미학적 내지는 음악 교육적 측면에서의 고찰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용어, 개념의 해석 및 자료의 문제이다.

따라서 용어와 개념은 가급적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 원문의 본래적 의미에 충실하고자 주력하였고, 문헌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범위는 음악에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문헌 연구는 기본 텍스트로서 孔子 음악사상과 관련이 있는 『論語』⁵⁾와 『禮記』⁶⁾ 「樂記」⁷⁾편을 주로 하면서 그 밖의 유가경전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論語』는 孔子의 삶과 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유가사상의 최고 경전이며 동양의 사상이나 예술을 연구하는 사람은 『論語』를 일차적으로 연구자료

-
- 5) 『論語』는 孔子가 자기의 제자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응답한 것과 제자간에 교환된 문답 등을 孔子의 제자 또는 再傳弟子들이 기록한 것이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論語』라는 책은 西漢末 元帝(BC49-33)때 安昌侯 張禹가 「魯論」을 주로 하고 「齊論」을 참조하여 오늘날의 20장 체제로 확정한 「張侯論」 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論語』는 모두 20편으로 각편의 제목은 각편 첫 머리글자를 따르고 있는데 그 명칭은 學而, 爲政, 八佾, 里仁, 公冶長, 雍也, 述而, 泰伯, 子罕, 鄉黨, 先進, 顏淵, 子路, 憲問, 衛靈公, 季氏, 陽貨, 微子, 子張, 堯曰이다.
 - 6) 『禮記』는 五經의 하나로, 『周禮』, 『儀禮』와 함께 三禮라고 하며 『儀禮』가 禮의 經文이라면 『禮記』는 그 설명서에 해당한다. 그 성립에 관해서는 분명치 않으나, 前漢의 戴聖이 孔子의 제자를 비롯하여 漢시대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의 손으로 된 『禮記』 200편중에서 편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曲禮, 檀弓, 王制, 月令, 禮運, 禮器, 郊特牲, 明堂位, 學記, 樂記, 祭法, 祭儀, 冠儀, 婚儀, 鄉飲酒儀, 射儀 등의 諸篇이 있고, 禮의 이론 및 실재를 논술한 것이다.
 - 7) 「樂記」는 戰國末에서 漢初에 걸쳐서 儒家學者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中國古代樂論을 집대성한 책이다. [荀子] 「樂論」篇과함께 대표적인 樂書이다. [禮記注疏]에 있는 孔穎達의 疏에 의하면 본래 「樂記」는 河間獻王이 儒學을 즐겨 毛生등과 周官 및 諸子로서 樂事를 말한 자의 설을 채택하여 이를 지었다고 한다. 『禮記』의 49편 중 제 19편에 속하며 그 體制는 樂本, 樂論, 樂施, 樂言, 樂禮, 樂情, 樂化, 樂象, 賓牟賈, 師乙, 魏文侯의 十一編으로 되어 있다.

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禮記』 속에 전해지고 있는 「樂記」는 고대 중국 儒家美學思想史에서 유일하게도 音樂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音樂論이라 할 수 있어서 참고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Ⅱ. 孔子 音樂思想의 基底와 背景

1. 儒家 樂論의 思想的 背景

고대 중국에 있어서 樂은 각종 예술 중에서 가장 중시되었고, 고도의 발전을 이룬 하나의 예술이며, 각종 예술의 중심이고 원천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樂論은 독자적으로 생성되고 성장하여 전개된 것이 아니다. 어느 사상이나 철학처럼 그것은 일찍부터 정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하였다. 정치적 철학에 따라 ‘樂’을 바라보는 인식태도는 각기 달랐던 것이다.

제자백가 중에서도 儒家는 특히 예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樂을 중시하였으며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왔다. 儒家의 樂論은 무엇보다도 중국고대정치의 커다란 축의 하나인 ‘禮樂정치’의 한 근간이고 禮樂정치는 孔子로부터 시작되었다.⁹⁾ 따라서 무엇보다도 儒家 樂論의 형성은 孔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천년이 넘도록 오랜 세월 동안을 지배해온 중국의 음악철학은 孔子의 가르침에 의한 禮樂思想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600여년경 공자(孔子, B. C, 551-479)가 태어난 시기는 春秋時代 말기에 해당한다. 그 시대는 周왕조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중국은 12개의 諸侯國으로 갈라져 서로 패권을 다투는 시기였다. 이때에는 제후들 간에도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후국 안에서도 내란이 빈번히 일어났다. 제후들이 행사하던 권력들이 점차 힘센 大夫家들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있었

8) 李澤厚, 劉綱紀, 『中國美學史』 (서울: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92), p.66.

9) 呂基鈺, 中國古代樂論研究: 儒, 道家를 中心으로, 『泮橋語文研究』 9集, 1998, p.36.

다. 孔子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국제적인 전쟁과 무정부적 혼란 상황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붓을 들어 王을 弑害한 亂臣과 아버지를 살해한 賊子들의 無道한 하극상 역사에 기록해서 당시 사람들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春秋』를 편찬하게 되었다.

孔子가 태어난 魯나라도 이 春秋時代에 들어와 季孫氏, 叔孫氏, 孟孫氏 등 世大夫家들의 세력이 커져 그들이 나라의 정치와 군권을 손에 쥐게 되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계손씨의 권세가 강하여 襄公의 뒤를 이은 昭公을 내쫓는 일까지 자행하였다. 魯나라는 비록 북쪽으로는 齊나라, 남쪽으로는 甯나라 같은 강대국 사이에 있는 조그만 제후국이었지만, 周나라 왕실과는 매우 가까운 나라의 하나였고 수도 曲阜는 禮樂과 文物이 넘치고 있었다.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 상황은 이처럼 혼란했지만 魯나라에서는 여전히 周나라의 禮治主義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孔子도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그의 사상과 철학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⁰⁾

孔子는 春秋時代의 혼란기에 살면서 그 당시 사회의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西周 시기에 융성하였던 禮樂文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렇지만 周代에 성행하였던 사회질서 체제이던 禮制는 周末에 이르러서는 虛禮虛飾化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사회, 경제적인 변화로 인한 西周 封建制의 붕괴는 당시의 사회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었으며, 이리하여 西周의 지배이념이던 禮는 지배이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에 周王室의 권위는 이미 무너져 버린 후였고, 제후국들은 자신들의 이익 확보에 급급하여 差別的 社會秩序이던 禮制를 마음대로 이용하였으니, 이를 孔子는 禮樂征伐이 諸侯로부터 나오는 ‘天下無道의 사회’로 보았다.

10) 김 영, 『論語를 읽는 즐거움』 (서울: 韓國學術情報(株), 1998), pp.18-19.

천하에 道가 있으면 禮樂征伐이 天子로부터 나오고, 천하에 道가 없으면 禮樂征伐이 諸侯로부터 나온다.¹¹⁾

孔子는 이러한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禮樂의 文物制度를 바르게 정립하고자 하였고, 그 기준을 周나라의 禮制에서 찾고자 하였다.

周나라는 夏나라와 殷나라의 二代에서 禮樂文物을 본받았으니, 빛나도다. 문채여! 나는 周나라를 따르리라.¹²⁾

이처럼 孔子는 周의 문화를 찬양하면서 周禮를 당시 사회의 혼란상을 극복할 보편적인 人倫秩序의 모범으로 삼았다. 孔子는 스스로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하게 옛 것을 배우기를 추구한자”¹³⁾라고 자신을 평하고 있는데, 여기서 孔子가 좋아하고 배우고자 했던 옛것이란 바로 周代의 禮樂文物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⁴⁾ 즉 孔子는 결코 독자적으로 문화나 사상을 創出한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와 사상을 계승하여 그 본질을 잘 파악하고 새롭게 재해석하여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한 것으로 보인다.¹⁵⁾

周나라의 건국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먼저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것이 禮樂制定이었다. 周代의 통치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왕조의 통치를 공고히 하는 유효한 수단으로써 禮와 樂을 선택하였고, 동시에 그것을 이용함에 따르는 제도를 엄격히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禮와 樂은 거의 같은 보조로 발전해 왔으나 春秋時代 이후로 禮가 樂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 孔子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

11) 『論語』 「季氏」 2, 子曰 天下有道則禮樂征伐自天子出 天下無道則禮樂征伐自諸侯出.

12) 『論語』 「八佾」 14, 子曰 周監於二代 郁郁乎文哉 吾從周.

13) 『論語』 「述而」 19, 子曰 我非生而知之者 好古敏以求之者也.

14) 都民宰, 孔子 禮樂思想의 哲學的 基盤, 『韓國의 禮節』 第5號, 2003, pp.296-297.

15) 李相殷, 前揭書, p.28.

는 禮樂思想을 계승하면서, 종교적, 제도적 성격에 仁이라는 인간성의 구체적 실현방법을 부가하여 재해석한다. 孔子는 禮樂을 바탕으로 한 예술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이로써 禮樂은 孔子에 의해 인간내재의 美感과 현실정치개조의 연결고리 역할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던 것이다.¹⁶⁾

이처럼 儒家 禮樂制度 재건의 주장은 孔子에 의해서 그 첫 시도가 이루어졌던 바, 이것이 바로 붕괴 국면의 禮樂에 개인의 도덕과 사회윤리 의식이라는 새로운 유가 철학적 색채를 덧씌운 儒家的 禮樂의 탄생인 것이다.

2. 禮樂思想에서의 禮와 樂의 考察

孔子를 대표로 하는 儒家에서는 禮樂思想이라고 하여 樂은 禮와 並稱되면서 그 의미를 드러낸다. 고대중국에 있어서의 樂은 항상 禮와 관련되었고, 이러한 면은 국가에서 제사와 같은 大事를 거행할 때 禮와 樂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유학은 禮문화라고 일컬어지지만 禮는 반드시 樂과 상호보완적 관계에서만 그 功效의 기대가 가능한 것이다. 儒家의 禮樂思想은 인류의 도덕질서와 정치질서의 틀로써 禮를 이상적 가치 체계로 설정하고, 아울러 樂으로써 인간을 교화하여 최고의 이상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체계이다.

儒家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禮와 樂이다. 자연의 理나 事物의 理와 같은 근본적인 이치를 규명할 때에 질서적인 요소는 禮로, 화합은 樂으로 그 의의는 다르나 兩者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樂과 禮의 관계는 자연이나 사물의

16) 林泰勝, 孔子 禮樂思想의 美學的 考察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2), p.78.

理를 질서 지우면서, 한편으로는 조화롭게 하여 그 理를 생동감 있는 理가 되게 하는 것이다.

「樂記」에서,

樂은 천지의 和이고, 禮는 천지의 序이다.¹⁷⁾

樂이란 배푸는 것이고, 禮란 보답하는 것이다.¹⁸⁾

라고 하여, 禮와 樂은 天地의 和와 序를 본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며, 禮와 樂이 陰陽의 性情을 본받아 이루어진 것인데, 禮와 樂을 이러한 性情으로 표현하면 ‘報와 施’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天地의 조화만으로는 세계의 존재함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天地의 질서와 조화 속에서만 세계가 바르게 존재할 수 있게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樂과 禮가 相補적으로 작용할 적에 자연을 자연답게, 인간을 인간답게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樂을 고찰함에 있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개념은 禮이다. 儒學에서 樂은 항상 禮와 관련을 지니고 있으니, 이 禮樂은 儒學의 본령인 修己治人の 外的 발현이며, 동시에 그 발현을 촉구하는 방편이다.

그러므로 孔子도,

禮에 의하여 서고, 樂에 의하여 완성된다.¹⁹⁾

라고 하였다. 이는 개인적으로 인간을 완성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를 완성

17) 『禮記』 「樂記」 樂論篇, 樂者 天地之和也 禮者 天地之序也.

18) 『禮記』 「樂記」 樂象篇, 樂也者 施也 禮也者 報也.

19) 『論語』 「泰伯」 8, 子曰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사와 우주의 질서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유학사상의 본령을 현실적으로 드러내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禮와 樂에 대해서는 「樂記」에 그 功能이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서술하고자 하는 중심내용은 한 시대의 禮, 樂의 의미가 아니고 유학사상 전반에서의 禮, 樂의 개념 및 그 관계의 기초를 「樂記」를 기본 교재로 삼아 禮樂思想에서의 禮樂의 관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禮가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樂記」에서,

禮란 天地의 秩序이다.²⁰⁾

禮는 이치의 바꿀 수 없는 것이다.²¹⁾

라는 말에서, 禮는 우주자연의 모든 이치를 일괄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春秋左氏傳』에서,

대저 禮란 백성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다.²²⁾

禮는 국가의 근간이 된다.²³⁾

禮는 국가를 경영하고, 社稷을 바르게 하고, 백성을 秩序
지우며, 後嗣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²⁴⁾

20) 『禮記』 「樂記」 樂論篇, 禮者 天地之序也.

21) 『禮記』 「樂記」 樂情篇, 禮也者 理之不可易者也.

22) 『春秋左氏傳』 「莊公23年」, 夫禮 所以整民也.

23) 『春秋左氏傳』 「襄公30年」, 禮 國之幹也.

라는 말에서, 禮는 국가의 통치질서이자 法制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개개인이 지켜야할 규범으로도 나타나는데,

禮는 사람의 근간이 된다.²⁵⁾

禮는 몸을 바르게 하는 所以이다.²⁶⁾

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禮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덕목들을 포괄하는 恒德의 총칭이 된다. 이러한 禮는 인간의 本性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니,

禮란 人情에 따르되 이를 節制하고 문식한다.²⁷⁾

대저 禮는 마음을 中正케 하고 節制하는 것이다.²⁸⁾

라고 하여, 禮의 功能은 인간의 感情에 근거하여 그것이 外的으로 발현하는 행위를 儉約케 작용을 함을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中正의 작용에서도 樂과 禮는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樂이란 古代 儀禮를 실행할 때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儀禮의 실행에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音樂이 연주되어졌다. 이러한 점은 현재에까지 이어져 내려와 文廟祭禮에서도 祭禮樂이 연주됨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樂을 「樂記」에서는,

24) 『春秋左氏傳』 「隱公11年」, 禮 經國家 定社稷 序人民 利後嗣者也.

25) 『春秋左氏傳』 「昭公7年」, 禮 人之幹也 無禮無以立.

26) 『荀子』 「修身」 10, 禮者 所以正身也.

27) 『禮記』 「坊記」, 禮者 因人之情而爲之節文也.

28) 『禮記』 「仲尼燕居」, 夫禮 所以制中也.

대체로音が 일어나는 것은 人心에서 말미암아 생긴 것이며, 人心이 움직이는 것은 物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人心이 物에 감응하면 움직이어 소리(聲)로 형용되고, 소리(聲)가 서로 응하여 변화가 생긴다. 변화가 곡조를 이룬 것을 음이라 하고, 음을 배열하여 樂器로 연주하여 干戚羽旄²⁹⁾에 미치는 것을 樂이라 한다.³⁰⁾

樂은 人心에서 의거하여 생겨나는 것이며, 倫理와 통하는 것이다.³¹⁾

라고 하였다. 옛 사람들은 祭禮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樂이 수반되었는데, 특히 『詩經』은 당시 사람들의 感情들을 노래할 적에 불렀던 가사들과 국가의 大事 및 귀족들의 회합에서 音樂의 연주와 함께 불려졌던 노래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진 것이며, 여기서 樂이 祭禮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樂의 목적은 人心에서 나온 모든 感情들을 도덕적으로 節制하고 調和함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性情을 中正하게 유지하는 데에서 樂과 禮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개인과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禮와 樂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禮와 樂은 서로 상대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樂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며, 禮는 밖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³²⁾

29) 干은 방패이고, 戚은 도끼로 武舞를 출 때 사용하는 舞具이다. 羽는 깃이고 旄는 소꼬리로 장식한 기로 文舞를 출 때 사용하는 舞具이다.

30) 『禮記』 「樂記」樂本篇, 凡音之起 由人心生也 人心之動 物使之然也 感於物而動 故形於聲 聲相應故生變 變成方謂之音 比音而樂之及干戚羽旄 謂之樂.

31) 『禮記』 「樂記」樂本篇, 樂者 音之所由生也 樂者 通倫理也.

32) 『禮記』 「樂記」樂論篇, 樂由中出 禮自外作.

樂은 마음속에서 작용하며, 禮는 밖으로 작용한다.³³⁾

라 하여, 樂은 인간내면의 感情을 드러내며 禮는 외면적인 행위를 制禦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樂은 한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되고, 禮는 서로 구별하는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닌 禮와 樂은 모든 행위를 地高至純의 境地에 合一하게 유지시키려는 점에서는 동일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禮樂의 일은 感情을 融化하고 外貌를 修飾하는 것이며 잠시도 떠나서는 안되는 것으로 이 禮樂이 갖추어진 후에야 天地가 바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先王이 禮樂을 制定하려는 의도는 백성들의 好惡의 感情을 바르게 하여 人道의 바름으로 돌이키고자 하였던 것³⁴⁾이며, 이로써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禮와 樂은 相互輔足하는 관계에 있다.

『禮記』에서,

禮에 通達하고 樂에 通達하지 못하면 素朴하게 되고, 樂에 통달하고 禮에 통달하지 못하면 偏狹하게 된다.³⁵⁾

라고 하였고, 「樂記」篇에,

樂이 지나치면 방탕하고, 禮가 지나치면 사이가 소원하게 된다.³⁶⁾

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상호간의 調和의 여부가말로 인간 개개인과 국가사회의 調和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33) 『禮記』 「樂記」樂化篇, 樂也者 動於內者也 禮也者 動於外者也.

34) 『禮記』 「樂記」樂本篇, 先王之制禮樂 ... (中略)... 將以教民平好惡 而反人道之正也.

35) 『禮記』 「仲尼燕居」, 達於禮而不達於樂 謂之素 達於樂而不達於禮 謂之偏.

36) 『禮記』 「樂記」樂論篇, 樂勝則流 禮勝則離.

결과적으로 禮는 이질성의 인정이고, 樂은 다양성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귀천의 계급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異質性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秩序를 유지하고, 그들 상호간을 원활하게 調和시키려는 것이 바로 樂이다.

그러므로 “홀륭한 禮와 樂은 簡易하다”³⁷⁾고 하는 것이다. 易와 簡은 乾坤의 德이다. 인간에게도 天地(乾坤)와 같은 위대한 德이 있으며, 성인의 德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德을 가진 성인의 功績이 중심이 된 樂과 禮는 天地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이처럼 禮樂을 인간의 도덕적인 감정에 호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의 성질을 따라서 천지자연과 함께 하게 되면 禮와 樂의 조화는 간단하고 쉽게 된다.

그러므로 禮樂으로써 조화된 사회는 天地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는 것이며, 大禮와 大樂은 簡과 易의 德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簡하다면 쉽게 따르게 되고, 易하다면 쉽게 알게 된다. 易와 簡으로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고 천하의 理를 터득하는 것이니, 천하의 理를 터득하면, 그렇게 되어 가는 중에 人位(天地人 三才 중의 人位)가 이루어진다³⁸⁾고 한다.

이처럼 禮와 樂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天地의 秩序와 同和되어 인간을 바로 잡고, 나아가서 사회질서를 調和롭게 유지하고 완성시키고자 하는 유학의 이념적 추구를 그 世間的 실현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禮樂的 思想을 밑바탕으로 하여 孔子의 음악에 대한 예술관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37) 『禮記』 「樂記」樂論篇, 大樂必易 大禮必簡.

38) 『周易』 「繫辭上」1-4, 易簡而天下之理得矣 天下之理得 而成立乎其中矣.

Ⅲ. 孔子의 音樂的 審美觀

孔子시대의 '樂'은 詩, 歌, 樂, 舞가 종합된 개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樂에 대하여 孔子는 상당한 식견과 실제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그의 음악 사상은 충분한 물질적 기초를 바탕으로 삼았으므로 이론만 말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孔子는 철학자이자 정치가이며 교육자였으므로 매우 넓은 각도에서 음악을 볼 수 있었으니 음악을 위해 음악을 하는 사람들과도 달랐다.

기록에 의하면 孔子는 樂器의 조작은 물론 古樂에 대한 감상과 비평을 하는 훌륭한 음악인이었다. 孔子는 항상 琴과 瑟을 주변에서 떼어놓지 않았으며 그것에 의해 즉시 그때의 감정을 표현했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그것에 심취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곤 했다. 또 그 나름대로의 음악을 듣는 기준이 있어 매우 정확한 음악평을 하였으며, 그의 연주도 매우 수준급이었다.

이와 같이 그가 진정한 음악가였다는 사실이 『論語』와 『禮記』 「樂記」, 『史記』 「孔子世家」 등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孔子는 음악에 조예가 상당히 깊었으며, 음악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

孔子의 이러한 音樂的 審美觀을 그의 음악에 대한 감상과 비평 및 연주 활동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感想과 批評

孔子의 음악에 대한 관심은 그의 음악을 듣는 태도 및 비평에서 더 한층 그가

음악에 심취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孔子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 魯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 당시의 군주였던 昭公은 삼환씨에게 내쫓겨 齊나라로 도주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孔子도 昭公의 뒤를 쫓아 齊나라로 가서 大夫 한사람을 섬기면서 몇 년 동안 머물렀다. 이때 孔子는 처음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음악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감동을 느끼는 경험을 하는데, 이 사건은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齊나라에는 옛 성왕 舜이 만들었다는 훌륭한 음악, 韶가 전해오고 있었다.

『論語』에,

孔子가 齊나라에 계실 때 韶樂을 듣고 석달동안 고기 맛을 잊으시고,
“음악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줄 알지 못하였구나.”³⁹⁾

라고 하였다. 위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에 孔子가 古代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악곡 중 가장 즐겨 감상했던 것은 韶樂이었다. 孔子가 齊나라에 머물면서 <韶> 라는 음악을 듣고 감격하여 齊나라의 음악 담당 관리들로부터 3개월 동안이나 학습하였다. 그 삼개월 동안에는 진수성찬의 고기 맛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열중했다. 齊나라의 樂工들이 연주하는 韶樂을 듣고 “음악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줄 몰랐구나!” 라며 이토록 감동적이나고 감탄한 것을 보면 韶樂에 대한 孔子의 관심은 매우 각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孔子는 그때까지는 음악이 그토록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뜻밖의 음악적 경지에 달한 것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음악 속에서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즉 음악과 자신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됨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이 孔子가 음악을 감상함에 있어서 추구하는 바이다.

39) 『論語』 「述而」 13, 子在齊聞韶 三月不知肉味 曰 不圖爲樂之至於斯也.

孔子는 이때 이후로 사람의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음악을 존중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韶樂과武樂을 비교하여 말하며論한 대목을 보면音樂批評家적 소양을 엿볼 수 있다.

『論語』에,

舜임금의 음악韶는 아름다움에 다다랐고 또 훌륭함도 다다랐다. 그러나武王의 음악武는 아름다움에는 다다랐으나 훌륭함에는 다다르지 못하였다.⁴⁰⁾

라고 하였다. 이 말은韶의 음악은美의 극치와善의 극치를 다 이루었지만武의 음악은美의 극치는 이루었으나善의 극치는 이루지 못하였다고 비평하고 있다. 이는孔子가韶와武의 두 음악을 듣고 평한孔子의 독특한 음악평이다.

韶는舜왕의 음악이고,武는武왕의 음악을 말한다.舜은도덕적 능력에 의해堯로부터 평화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았으나,周의武왕은聖王이나 무력 혁명으로前王朝를 타도하고 그 혁명의 경과를武樂으로 표현한 것이武이므로 아름다운 음악이되,善을 이룬 음악이 되지 못하고韶의 음악은美와善을 함께 완성한 것이라고孔子는 평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孔子는 자기 나름대로의 음악비평의 기준이 확고하게 세워졌던 것이다. 그것은 즉美와善의 관점이었다. 아름다움의 근본은善이다.善없이는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벽한 아름다움이란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孔子는 믿고 있었던 것이다.

孔子는 매우 훌륭한 음악 평론가였다. 그는 진정으로 음악을 들을 줄 아는 비평가였다. 이러한 사실이『論語』에 잘 나타난다.

40) 『論語』 「八佾」 25, 子謂韶 盡美矣 又盡善也 謂武 盡美矣 未盡善也.

孔子가 魯나라 태사악에게 말하기를 음악은 가히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처음 연주를 시작할 때는 숨겨진 것처럼 잘 맞고, 좀 더 나아가서는 調和롭게 되어 밝게 빛나며,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고 나감으로써 完成되는 것이다.⁴¹⁾

위의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孔子는 음악의 명인이요, 달인이었다. 위의 내용은 음악의 大家이며, 魯나라의 최고 樂官인 태사와 음악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은 대화의 한 장면이다. 달인끼리 주고받은 매우 전문적인 내용의 음악평론인 것이다.

이처럼 孔子는 음악에 조예가 깊었으며, 음악에 대해 자신 있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비평할 수 있을 정도로 음악적 수준이 높았다. 또한 음악의 이론적인 면에도 매우 밝았고 구체적인 작품이나 연주에 대해서도 정확한 비평을 할 수 있는 음악 평론가였다.

江文也는 孔子를 가리켜 “중국 음악사 가운데 음악에 관해 비평다운 비평을 시도했던 사람은 孔子였다”⁴²⁾고 서술하고 있다. 孔子는 음악을 단순히 관심이나 애호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 그는 음악을 감상함에 있어 본질적 가치와 형식을 파악하려 했으며, 나아가서 이런 점들을 비평하였던 것이다.

2. 演奏

孔子는 음악가인 동시에 그의 생활자체가 음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41) 『論語』 「八佾」 23, 子語魯大師樂 曰 樂其可知也 始作翕如也 從之 純如也 皦如也 繹如也 以成.

42) 江文也, 『古代中國正樂考』, 鄭和子 譯 (清州: 清州大學校出版部, 2001), p.125.

이다. 그의 이러한 면을 연주 생활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論語』에서,

孔子는 이날 哭하시고 노래는 하지 않으셨다.⁴³⁾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 하나는 哭을 한 날은 노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와, 또 다른 하나는 哭을 한 날을 빼놓고는 항상 노래를 불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한 가지 사실로도 孔子가 얼마나 노래를 즐겨 불렀는지 알 수 있다.

또 孔子가 노래(歌)를 즐겨한 사실을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다.

孔子는 사람들과 더불어 노래할 때 잘하면 반드시 다시 하라 하시고 그 뒤에 따라 하셨다.⁴⁴⁾

이와 같이 孔子는 樂이나 노래에 대해서 그 예술성을 높게 평가하여 배울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익숙하도록 학습하고자 노력하였다. 孔子는 이처럼 음악을 단지 즐기기 위한 음악으로 尊崇한 것이 아니다. 함께 화합하여 與民同樂할 수 있는 음악성을 창출해 낸 것이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음악적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은 타인의 음악에 共鳴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共鳴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孔子는 선천적으로 음악성을 타고났음을 알 수 있다.

孔子에게 있어서 歌란 단순히 노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3) 『論語』 「述而」 9, 子於是日哭則不歌.

44) 『論語』 「述而」 31, 子與人歌而善 必使反之 而後和之.

삼백오편 모두 琴瑟로 노래하였다.⁴⁵⁾

子路가 琴을 타면서 노래부르니, 孔子가 이에 화답하였다.⁴⁶⁾

瑟를 가져다 노래불렀다.⁴⁷⁾

라고 하여, 孔子가 노래할 때 반드시 琴이나 瑟 등의 樂器 반주에 의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孔子가 琴이나 瑟을 아주 훌륭히 연주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노래만 부르는 것만도 어려운 일인데, 다른 한편으로 琴瑟을 같이 병행하여 노래와 함께 연주했다는 면에서 아주 훌륭한 연주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孔子는 琴이나 瑟을 중요시하였으나 단지 오락이나 여흥을 위해서 연주한 것이 아니었다. 오락의 경지를 넘어선, 다시 말해서 음악이 곧 그의 생활 자체였다.

이와 같이 孔子가 잠시라도 琴이나 瑟을 자기 주변에서 떼지 않은 것을 江文也는 “孔子는 본능적으로 음악가였기 때문”⁴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구체적인 연주생활의 보기를 들면 『論語』에,

유비가 孔子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다. 그는 병을 핑계로 거절하였다.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문을 나서자, 瑟을 타며 노래를 불러 그가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⁴⁹⁾

45) 『史記』 「孔子世家」, 三百五篇皆 絃歌之.

46) 『孔子家語』, 子路彈琴而歌 孔子之和之.

47) 『論語』 「陽貨」 20, 取瑟而歌.

48) 江文也, 前掲書, p.204.

49) 『論語』 「陽貨」 20, 孺悲欲見孔子 孔子辭以疾 將命者出戶 取瑟而歌使之聞之.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의瑟을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孔子는磬⁵⁰⁾을 잘 쳤다.

『論語』에,

孔子가衛나라에서磬을 치고 있을 때, 바구니를 메고 그 집 앞을 지나가던 자가 있었다. 그가孔子의磬치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마음에 미련이 남아 있구나”磬을 치는 소리를 들으니. ⁵¹⁾

라고 하였다. 이 구절을張其的은 “孔子의磬치는 소리가, 모든 감정이音節중에 표현될 정도에 달하였기 때문에, 바구니를 멘 사람이孔子가有心이란 것을 들어서 알 수가 있다”⁵²⁾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孔子는 여러樂器에 능하였으며 악기를 연주함에 있어서孔子 자신이 음악에 몰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孔子가樂을 배우는 태도는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史記』에 그가樂을 배우는 태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孔子가師襄子에게琴을 배울 때의 일이다. 曲을 시작하고 나서 10여 일이나 지났지만孔子는 전혀 다음으로 넘어가려 하지 않았다. 선생이 오하려 주의를 주었더니,孔子가 말하기를 그 선율의 윤곽은 알았지만 그數 [곡의節奏] 를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 얼마 지난 후 師襄子가數를 깨달았으니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청하자,孔子는 그志를 알지 못함을 설명하였다. 또 얼마 지난 후, 선생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청하니孔子가 답하기를 그 작곡자의 사람됨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

50) 돌이나 옥으로 만든 악기.

51) 『論語』 「憲問」 42, 子擊磬於衛 有荷簣而過孔氏之門者 曰有心哉 擊磬乎.

52) 張其的, 『孔子學說의 現代的 意義』 (서울: 螢雪出版社, 1981), p.291.

다.53)

이와 같이 孔子는 음악을 배움에 있어서, 단지 기술이나 기교에 그치지 않고, 그 곡의 근본적인 정신을 터득하려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그 작곡자의 人格主體를 파악하려 했던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그의 평소의 음악 생활과, 음악 수업에 임하는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孔子의 음악적인 생활이 평상시에만 행하여졌을까? 이에 대한 설명이 『史記』에 잘 나타나는데, 孔子는 매우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樂器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史記』에,

孔子가 楚나라로 가던 도중 陳蔡의 들에서 위협을 당했을 때의 일이다. 生과 死의 갈림길에 孔子는 유유히 絃을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54)

라고 하였다. 사람은 절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孔子는 음악을 통해 절망과 고통을 승화시키려고 한 것 같다.

또한 孔子가 그 당시의 樂師들과 교제한 사실이 『論語』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大師 지는 제나라로 갔고, 亞飯 간은 초나라로 갔고, 三飯 요는 체나라로 갔고, 四飯 곁은 진나라로 갔고, 북을 치는 방숙은 하내로 들어갔고, 작은북을 흔드는 무는 한중으로 들어갔고, 小師 양과 경을 치는 양은 섬으로 들어갔다.55)

53) 『史記』 「孔子世家」, 孔子學鼓琴師襄子 十日不進 師襄子曰 ... (中略)... 孔子曰 丘未得其爲人也.

54) 『史記』 「孔子世家」, 圍孔子於野 不得行 絕糧 從者 病莫不興 孔子講誦絃歌不衰.

라 하여, 여기에 大師, 亞飯, 三飯, 四飯, 播鼗, 小師, 擊磬 등은 모두 樂官을 말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孔子는 음악과 더불어 생활하였으며, 직접 그 자신이 琴이나 瑟을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 또한 그는 모든 것을 음악을 통해 승화하려 했던 것이다.

이로써 孔子의 일생은 음악과 늘 함께 하였고, 음악에 대한 전문가 이상의 소양과 능력은 물론 음악의 기능과 가치를 인식한 고도의 審美的 교양을 갖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55) 『論語』 「微子」 9, 大事摯適齊 亞飯干適楚 三飯繚適蔡 四飯缺適秦 鼓方叔入於河 播鼗武入於漢 少師陽 擊磬襄入於海.

IV. 孔子의 音樂觀

1. 詩와 樂

孔子의 근본사상은 人本主義的 實踐哲學으로서 이상적인 인간성의 구현에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리하여 孔子는 무엇보다도 인간다운 본질을 밝히고자 인간형성 교육에 노력하였다.

樂과 詩는 이러한 孔子의 인간교육에 부응되는 예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시 하였다. 孔子는 詩에 관해서 언급을 많이 했으나, 다음의 말로써 詩의 정신과 교육적 가치를 요약할 수 있다.

『論語』에서 孔子는,

詩 300편의 뜻을 한마디의 말로 대표할 수 있으니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⁵⁶⁾

라고 하였다. 즉 『詩經』의 전체적 성격을 “思無邪(생각에 간사함이 없다)”로 파악한 것으로, 인간 性情의 純化라고 하는 詩의 기능이 인간교화 내지 윤리적 효용성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詩는 人間心情的 發露⁵⁷⁾로서 인간의 정서를 潤澤하게 하고 나아가서 진정한 삶의 意義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孔子는 門人들을 향하여,

56) 『論語』 「爲政」 2, 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

57) 『書經』 「舜典」 24, 詩言志 歌永言.

그대들은 왜 詩를 배우지 않느냐? 詩는 感興을 돋우게 하고, 人情을 관찰케 하며, 사람과 어울리게 하고, 非情을 원망할 줄 알게 한다.⁵⁸⁾

라고 하여, 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詩의 感應에 대한 效能, 人物에 대한 情趣, 인간관계에 대한 윤리적 道理등 詩의 교육적 효용성에 관하여 敎示하고 있다. 詩를 배움으로써 인간은 感興을 일으키며, 性情을 和樂하게 昇華시킨다는 것으로 즐거움의 정신이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喜怒哀樂의 온갖 정서를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즐거움의 정신이 개인적 차원을 초월하여 대중들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詩를 배움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論語』에는 詩 그 자체만으로 완성의 단계를 바랄 수 없고 樂으로써 마침내 이상적인 인간형성의 완성단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고 하였다.

詩에서 感興을 일으키고, 禮로써 행동규범을 세우고, 樂으로써 性情을 완성시킨다.⁵⁹⁾

라고 孔子는 말하였다. 즉 인간 性情의 發露인 詩에서 즐거움이 시작하여 禮로써 행동규범을 확립하여 절제하고, 마지막으로 樂에 의해 조화로운 인간형성이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詩가 樂의 본질이고, 따라서 樂으로의 인간형성은 詩적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樂은 모든 예술 분야 가운데서 가장 純粹하고 가장 高度로 인간의 영혼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겠다.⁶⁰⁾

이렇게 볼 때 孔子에게 있어서 인간형성은 결국 詩, 禮, 樂 이라는 예술을 통

58) 『論語』 「陽貨」 9, 小子 何莫學夫詩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59) 『論語』 「泰伯」 8,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60) 江文也, 前掲書, p.198.

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예술과 인간형성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禮와 樂

孔子는 禮와 樂의 본질을 규명하고 참 가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였다. 즉 孔子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禮와 樂을 계승하고, 여기에 君子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써 別個로서의 禮와 樂이 아닌 禮樂이라는 統體的 개념으로 兩者의 본질과 기능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樂의 경우 禮와의 상관성은 더욱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樂記」에서,

무릇 音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樂은 윤리에 통하는 것이다. 때문에 聲만을 알고 音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같고, 音만을 알고 樂을 알지 못하는 것은 못사람들이며, 오직 君子만이 능히 樂을 아는데, 樂을 알면 곧 禮를 아는데 가까이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며, 禮樂 두 가지를 다 알아서 몸에 체득한 자를 有德者라 한다.⁶¹⁾

라고 했다. 여기서 聲은 자연적인 개념임에 대해, 音은 人爲的인 개념이며, 樂은 더욱 고차원의 윤리적 성격을 지닌 개념으로서, 오직 君子만이 樂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樂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禮가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禮와 樂 두 가지의 본질이 체득되어야

61) 『禮記』 「樂記」樂本篇, 凡音者生於人心者也 樂者通倫理者也 禮樂皆得謂之有德 德者得也.

비로소 君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질서와 인륜질서의 현실수단으로서의 禮와 공통된 성격을 갖는 樂, 이 양자는 君子만이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이다.⁶²⁾ 따라서 禮와 樂은 항상 禮樂으로 並稱되어져 왔다.

「樂記」편에 이르기를,

樂은 心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단 나타났을 때는 변하지 않고, 禮도 理致와 道理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일단 갖추어지면 변하지 않는다.⁶³⁾

라고 하여, 樂과 禮의 본질적 차이를 말해 주고 있다.

또한 樂은 和樂한 감정의 和를 極致로 하는 조화를 원리로 하고, 禮는 敬虔한 順을 極致로 하며 인간행위의 순리적 규범인 질서를 원리로 한다.⁶⁴⁾ 따라서 兩者는 주체적 인격의 형성원리가 되는 것이며, 다시 주체적 인격은 禮와 樂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차이로 樂은 同和를 이루고 禮는 차이를 이루며, 同和를 이루면 서로 親하고 차이를 이루면 서로 恭敬한다.⁶⁵⁾ 결국 禮는 恭敬의 情으로 樂은 和愛의 情으로 끝을 맺는 바, 禮樂의 본질은 敬과 愛에 있는 것이며 그것을 한결같이 하는 것, 즉 合敬과 合愛가 禮樂의 기능인 것이다.⁶⁶⁾

그러나 孔子는 무엇보다도 禮樂이 人情에 일치되어 있음⁶⁷⁾을 강조하고 있다. 즉 통일과 질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禮樂이 개념상 서로 이질적인 것이지만 모두 人情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⁶⁸⁾

62) 白琪洙, 孔子의 禮術思想, 『東洋學』 第11集, 1981, PP.274-275.

63) 『禮記』 「樂記」樂情篇, 樂也者 情之不可變者也 禮也者 理之不可易者也.

64) 『禮記』 「樂記」樂論篇, 樂極和 禮極順.

65) 『禮記』 「樂記」樂論篇, 樂者爲同 禮者爲異 同則相親 異則相敬.

66) 『禮記』 「樂記」樂論篇, 禮者殊事合敬者也 樂者異文合愛者也 禮樂之情同.

67) 『禮記』 「樂記」樂化篇, 禮樂之說 管乎人情矣.

68) 李相殷, 樂記의 音樂論에 관한 考察(I), 『東洋哲學研究』 5集, 1984, P.108.

그리하여 『禮記』에는,

禮樂이 서로 나아가는 바 禮가 이르는 곳에 樂도 또한 이른다.⁶⁹⁾

라고 말한다. 이는 禮와 樂이 禮樂이라는 統體的 개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원으로 융합될 때 兩者는 본질적으로 一體不可分の 형태를 이루게 된다⁷⁰⁾는 것이다.

또한 孔子는 당시의 혼란된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진실성 없는 형식화된 禮樂을 비난하여 참다운 質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論語』에,

禮라 禮라 말하는데 玉帛을 말하는가 樂이라하고 樂이라 하는데 鐘鼓를 말함인가!⁷¹⁾

라 하였다. 이 말은 禮樂은 玉帛(구슬, 비단)이나 鐘鼓(종, 북)같은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도덕적 본질이라는 것이다.⁷²⁾ 즉 禮樂의 중요성은 밖으로 보여지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립되는 근거로서의 본질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본질과 형식이 잘 조화되는 상태가 이상적이겠지만, 형식과 본질 중에서는 禮樂의 바탕인 정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孔子는 인간에게 유익한 즐거움과 손해 되는 즐거움이 세 가지씩 있는 데, 禮樂을 인간에게 유익한 것 중 첫 번째라고 여겨,

69) 『禮記』 「孔子閒居」, 禮之所至樂亦至焉.

70) 栗原圭介, 『中國古代樂論의 研究』 (東京: 大東文化大學 東洋學研究所刊, 1978), p.207.

71) 『論語』 「陽貨」 11, 禮云 禮云 玉帛云乎哉 樂云 樂云 鐘鼓云乎哉.

72) 劉明鍾, 『中國思想史』 (大邱: 以文出版社, 1983), P.64.

禮樂을 따르기를 좋아하며, 사람의 선함을 말하기를 좋아하며, 어진 벗이 많음을 좋아하면 유익하다.⁷³⁾

라고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子路가 成人(완성된 사람)에 대해 물으니, 孔子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일 臧武仲의 지혜와 公綽의 탐욕하지 않음과 卞莊子의 용기와 冉求의 才藝에, 禮樂으로써 文彩를 낸다면, 이 역시 成人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⁷⁴⁾

라고 하였다. 이 문장에서는 이상적인 전인격적 有德者로서 君子의 교양과 인격도야에 의한 인간완성을 위한 과정에 禮와 樂이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조화와 질서를 통해 최고의 人格美를 완성하고, 그를 통해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孔子 예술정신의 최종 목적이라 할 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禮와 樂의 가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임을 인식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인간행위의 외면적 질서인 禮와 정신의 내면적 조화를 이루는 樂은 상관관계에 있으며, 하나의 이상적 인간, 이상적 사회는 반드시 樂의 정신과 禮의 정신을 구비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73) 『論語』 「季氏」 5, 孔子曰 益者三樂 損者三樂 樂節禮樂 樂道人之善 樂多賢友 益矣 樂驕樂 樂佚遊 樂宴樂 損矣.

74) 『論語』 「憲問」 13, 子路問成人 子曰 若臧武仲之知 公綽之不欲 卞莊子之勇 冉求之藝 文之以禮樂 亦可以爲成人矣.

3. 樂의 中和美

‘和’의 이론은 예술의 근본으로서 동, 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대 중국의 孔子 시대의 音樂論 또한 和가 음악의 기본이 되었다.

이러한 和는 中을 전제함으로써 ‘中和’로서의 완전한 의미를 갖는다.

『中庸』에서,

喜怒哀樂의 감정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中, 나타나 모두 고르게 조직된 상태를 和라고 한다.⁷⁵⁾

라 하였다. 여기에서의 中은 모든 것을 조화시키고 통일시킬 수 있는 中으로 이미 和할 수 있는 힘이 內在하여 있다. 이처럼 和에는 中이 근거로 제시되며, 和는 節度 내지는 질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中을 나타내는 段階라 하겠다.⁷⁶⁾ 그러므로 中和란 단순히 조화로서의 和가 아니라 완벽하게 中節된 和를 의미한다.

樂이 中和의 效用을 가졌다는 것은 「樂記」篇에,

樂이라 함은 天地의 가르침이며 사람의 性情을 中和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情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⁷⁷⁾

라고 설명되어 있다. 특히 孔子가 樂에서 요구한 것은 <中和之感>과 <生育之氣

75) 『中庸』 1章,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76) 李相殷, 儒家의 藝術思想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0), p.103.

77) 『禮記』 「樂記」樂化篇, 樂者 天地之命 中和之記 人情之所不能免也.

>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孔子家語』에 잘 나타나 있다.

先王이音を制定함에 있어서 적중한 소리로 絶調를 맞게 하고 和平한 것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남쪽으로는 갈지언정 북쪽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쪽은 萬物이 나서 자라는 지방이고, 북쪽은 萬物이 죽는 살벌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君子의 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서 萬物을 生育하고 길러내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小人의 소리는 멋없이 놀기만 하고 쓸데없이 길기만 해서 살벌한 기운을 나타내기 때문에 中和된 情感이 마음에 실리지 아니하고 온화한 행동이 몸에 있지 아니하다. 대개 그러한 것은 바른 음악을 어지럽히는 음악이다.⁷⁸⁾

라고 하였는데, 이는 孔子의 제자인 子路가 瑟을 연주하는 것을 듣고, 孔子가 그의 재주 없음을 탄식하며 冉有에게 先王의 制音함을 설명한 것이다. 孔子는 中和에 맞는 즉 조화로운 운율 속에서 性情을 純化하고 인간에게 힘찬 생명력을 불어넣는 <生育之氣>의 樂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음악관⁷⁹⁾으로서 오늘날의 음악에 있어서도 절실히 요청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中和야말로 儒家思想의 기본이 되고, 藝術과 美의 척도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樂의 본질로서의 和를 「樂記」篇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樂은 天地의 和요, 禮는 天地의 序이다. 조화로우므로 百物이 모두 化하고 질서가 있으므로 온갖 사물이 구별된다. 樂은 하늘에 말미암아 지어

78) 『孔子家語』, 夫先王之制音也 奏中聲以爲節 流入於南 溫和之動 不在於體夫然者 乃所以爲亂之風.

79) 李相殷, 前揭書, p.57.

지고 禮는 땅으로써 제정되었다. 지나치게 제정하면 혼란하고, 지나치게 지으면 난폭하니, 天地의 이치에 밝은 이후에야 禮樂을 일으킬 수 있다.⁸⁰⁾

라고 하여, 樂은 天地의 조화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大樂은 천지와 더불어 和를 함께 하고, 大禮는 천지와 더불어 節度を 함께 하니, 조화로우므로 百物이 본성을 잃지 않고, 節도가 있으므로 天地에 제사지낸다. 밝은 데(明), 즉 이승에게는 禮樂이 존재하고, 그윽한 데(幽), 즉 저승에서는 귀신이 존재해서 萬物의 生成化育을 완전하게 한다. 이와 같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공경을 합치고 사랑을 함께 한다.⁸¹⁾

라고 하여, 위대한 樂은 天地와 더불어 그 和를 같이한다고 하였다. 또한 樂의 和가 나타난 곳을 살펴보면,

樂은 和를 돈독히 하여 陽의 氣를 따라 하늘에 따르고, 禮는 마땅함을 구별하여 陰의 氣를 좇아 땅을 따르나니, 그런 까닭으로 성인은 樂을 만들어 하늘에 응하고, 禮를 제작하여 땅에 따른다. 이와 같은 禮樂이 밝게 갖추어져 天地를 주관하는 것이다.⁸²⁾

라고 하였다. 이것 역시 天地陰陽의 조화를 체득하여 만들어낸 禮와 樂에 대해서

80) 『禮記』 「樂記」 樂論篇, 樂者 天地之和也 禮者 天地之序也 和故百物皆化 過作則暴 明於天地然後 能興禮樂也.

81) 『禮記』 「樂記」 樂論篇, 大樂 與天地同和 大禮與天地同節 和故百物不失 如此 則四海之內 合敬同愛矣.

82) 『禮記』 「樂記」 樂禮篇, 樂者 敦和樂神而從天 禮者 別宜居鬼而從地 故聖人作以應天 制禮以配地 禮樂明備 天地官矣.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地의 陰氣는 위로 올라가고 天의 陽氣는 밑으로 내려와 陽氣와 陰氣가 서로 마찰하여 天과 地가 서로 흐트러져 진동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움직임을 천둥, 번개로써 올리고, 비바람이 거세게 일어나 四時를 움직이게 하고, 해와 달로써 따뜻하게 하여 만물이 生成化育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樂이라 함은 天地의 和를 의미한다.⁸³⁾

라고 하였다. 여기에 나타난 樂은 단순한 和뿐만 아니라, 宇宙論的인 天地의 조화 원리를 표현하고, 陰陽說, 五行思想등이 나타난다. 오행사상이란 水, 火, 金, 木, 土로서, 고대 중국 사람들이 인정한 자연의 기본적 세력이며 宇宙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것을 뜻한다.

따라서 五行思想에 근거한 이 樂의 근원은 우주의 조화이다. 그러므로 人間과 天地와 藝術, 즉 音樂은 별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조화되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樂記」 편에,

偉大한 德을 갖춘 聖王이 禮樂을 실시하면, 天地는 和親하고 陰陽은 조화하고, 萬物이 따뜻하게 자라난다. 이런 연후에 草木은 무성하고 곡류등이 싹트고, 새들이 날고, 짐승은 生長하고, 벌레는 陽氣로 소생한다. 또 새들은 알을 깨고, 짐승은 새끼를 낳아 기르며, 愛胎하여 낳은 동물은 流産하는 일이 없고, 孵化하여 낳은 동물은 껍질이 깨질 염려가 없다.⁸⁴⁾

83) 『禮記』 「樂記」 樂禮篇, 地氣上齊 天氣不降 陰陽相摩 如此則 樂者 天地之和也.

84) 『禮記』 「樂記」 樂情篇, 是故 大人舉禮樂 則天地將爲昭焉 天地欣合 陰陽相得 胎生者不殯而卵生者不殯 則樂之道歸焉耳.

라고 하였다. 즉 樂의 道는 위와 같음을 설명한 것으로, 여기에서 볼 때 樂의 궁극적 목적은 이런 조화로운 세계를 실현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이상에서 樂이라함은 和를 본질로 하며, 특히 조화로운 음악은 인간의 性情을 純化시키는 작용뿐만 아니라, 인간 감정의 조화와 더불어서 天地의 조화로 나아가고, 天地의 조화는 곧 宇宙의 조화를 뜻하는 것이다.

調和로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화평해진다. 이는 和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인생론적 의미를 갖는다⁸⁵⁾는 것을 뜻한다.

4. 仁과 樂

儒家의 정신, 즉 孔子의 정신은 人文精神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아는 바일 것이다. 儒家가 인문 정신을 최고로 발휘했으며, 그 인문정신이 곧 仁의 실현으로 집약되는 것이다. 孔子의 중심사상은 仁이었다. 孔子는 인간의 인격적, 내면적 가치로서의 미덕으로 仁을 들었다.

사람으로서 仁하지 못하면 禮는 해서 무엇할 것이며, 사람으로서 仁하지 못하면 樂은 해서 무엇할 것이냐?⁸⁶⁾

고 하여, 仁의 본질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孔子는 본래적 性情의 순수한 일종의 도덕적 기초로서의 仁이 우선되어야 함을 論하고 있다. 따라서 仁의 실현은 孔子가 바라는 이상세계였으며, 이것이야말로 도덕적 가치의 지상 최고의 善이기도 하다⁸⁷⁾는 것이다.

85) 崔英辰, 中和思想의 哲學的 探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77), p.18.

86) 『論語』 「八佾」 3,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仁이란 개념은 孔子 이전에도 있었으나 대개 和順, 親愛, 慈愛등의 단편적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孔子에 이르러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구현해야 할 전인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⁸⁸⁾

그렇다면 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孔子는 『中庸』에서,

仁이란 인간다운 것이다.⁸⁹⁾

라 하여, 仁은 인간만이 지닌 특성으로서, 인간다운 인격형성에 빠뜨릴 수 없는 기본적 요소라고 하였다. 즉 사람으로서 理想에 合致한 인간이 되려면 그 이상적 인격으로서의 仁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⁹⁰⁾

또한 孔子는 『論語』에서,

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⁹¹⁾

라 하여, 仁의 구체적 내용으로 ‘愛人’을 강조하는 바 孔子의 愛人思想은 가까운 부모형제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인류전체에 대한 사랑으로서 확대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원래 仁이라 함은 그 문자 상으로 보아서 二와 人의 2자로 성립되는 것이다. 두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간에 대한, 또 한사람의 인간 관계이다. 즉 사

87) 江文也, 前掲書, p.203.

88) 柳七魯, 孔子의 時中之道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78), p.21.

89) 『中庸』 20章, 仁者人也.

90) 李相殷, 『儒學과 東洋文化』 (서울: 汎學圖書, 1981), p.126.

91) 『論語』 「顏淵」 22, 樊遲問仁 子曰愛人.

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하는 것이 仁인 것이다. 더 나아가서 조화된 질서를 만들고, 또한 국가와 국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 仁의 실현인 것이다.⁹²⁾

이에 孔子는 樂과 仁을 和의 관점에서 근원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仁과 禮樂을 연결시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克己를 필수로 하는 禮와 같은 행위 규정적인 것 보다 樂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융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⁹³⁾

또한 孔子는 고대의 禮樂을 전승함에 있어 仁과의 연결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철저히 예술화되고 개개인의 성격에 내재해 있는 모든 충돌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품성과 생활이 장차 최고의 자유, 가장 아름다운 조화, 최상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따라서 禮樂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궁극적 근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仁’이라고 孔子는 말하고 있다. 禮와 樂을 禮와 樂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仁이다. 그러므로 孔子는 禮樂의 본질은 바로 인간의 仁함에 있다고 주장한다. 仁의 본질이 결여된 禮樂은 형식화되어 빈 껍데기만 남는 것이다.

「樂記」篇에,

만물이 봄에 심고 여름에 성장하는 것은 仁이요, 가을에 거둬들이고 겨울에 저장하는 것은 義이니, 仁은 樂에 가깝고, 義는 禮에 가깝다.⁹⁴⁾

라 하여, 樂의 특성을 仁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또한 앞장에서 전술한 바 있는,

92) 江文也, 前掲書, p.203.

93) 民族音樂研究所, 『禮記』 「樂記」의 ‘樂禮篇’, 『音樂과 民族』 第5號, 1993, p.116.

94) 『禮記』 「樂記」樂禮篇, 春作夏長 仁也 秋斂冬藏 義也 仁近於樂 義近於禮.

孔子가 말하기를韶의 음악은美와 善의 극치를 모두 이루었으나, 武의 음악은美의 극치는 이루고 善의 극치를 이루지 못하였다.⁹⁵⁾

라고 하여, 孔子가韶와 武의 樂⁹⁶⁾을 들어美와 善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美라 함은 예술의 범주, 즉 樂의 범주라 할 수 있으며, 善은 도덕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善의 가치 실현으로 仁을 들 수가 있다.

위 예문에서 孔子는韶의 樂을絶讚하고, 善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감동은 인간의 본성이 天性和一體인 것으로서 儒家 윤리가 보여준 仁 혹은 恕라고 말하는 도덕에서 온 것⁹⁷⁾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孔子가 의도한 것은美와 善의 구분이 아니라 調和와 통일이었으며, 孔子가 예술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美와 善의 통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⁹⁸⁾

여기서 盡善은 仁의 정신을 지적해서 말한 것이다. 또 孔子가 樂에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곧美와 仁의 통일이고, 특별히 樂을 중시하는 까닭도 仁가운데 樂이 있고, 樂가운데 仁이 내포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孔子가 추구하는 樂의 세계는 도덕성(善)과 예술성(美)이 높은 경지로 이끌어져 調和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즉 樂과 仁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樂과 仁의 융합, 즉 예술과 도덕의 융합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孔子가 예술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美의 창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最高善(仁)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⁹⁹⁾

95) 각주 40참조.

96)韶는 舜이 제작한 음악으로, 舜은 聖君이라 그의 음악도 이상적이었다. 武는 周武王의 음악으로, 武王은 武力으로 天下를 잡았으므로 그의 음악은 장대한美는 있어도 평화로운 善은 부족했다.

97) 栗原圭介, 前掲書, P.470.

98) 徐復觀, 前掲書, P.13.

요컨대, 孔子는 仁과 연결된 예술 특히 樂을 통하여 조화로운 이상세계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5. <游於藝>의 境地

孔子는 본래적 인간성의 실현과 전인적 인격완성을 藝術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容認하였다.

『論語』에,

孔子가 말하길 “道에 뜻을 두며, 德에 근거하며, 仁에 의하며, 藝에서 노닌다.”¹⁰⁰⁾

라고 하였다. 이는 평소에 道에 뜻을 두고 이 道가 인간의 마음에 체득되어진 것으로서 德에 의거해서 私慾이 모두 제거되어 마음의 德이 온전하게 되는 仁의 경지에 의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藝’의 경지에서 노니는 것을 말한다.

이 ‘藝’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술(fine art)이라는 용어와 똑같이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개념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예술이라는 용어가 통일된 명칭으로 사용된 것은 <魏書> 藝術列傳에 처음 나타나며 그 이전에는 ‘藝’자만 홀로 나타나는데, 그 의미는 대략 技藝내지는 실생활 가운데서 技巧能力을

99) 李相殷, 前揭書, P.52.

100) 『論語』 「述而」 6, 子曰 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游於藝.

말하고 있다.¹⁰¹⁾여기서의 ‘藝’개념을 정확히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앞의 세 개념, 즉 道니, 德이니, 仁이니 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藝’란 이러한 모든 개념이 조화롭게 연결되고, 융합, 통일되어 표출되는 새로운 또 하나의 세계가 아닐까 한다. 또한 뜻을 둔다(志), 의거한다(據), 의지한다(依)등의 개념과 비교해볼 때 노닌다(游)는 말은 어떠한 구속도 없는 매우 자유로운 상태로 이해된다. 따라서 <游於藝>의 境地는 도덕적인 규범성과 예술적인 자유성이 조화롭게 통일되어 모든 人爲的인 것과 自然的인 것, 欲求와 法度가合一되는 理想世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⁰²⁾

孔子가 자신의 성장단계의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¹⁰³⁾

라는 말에서 孔子의 이상세계가 바로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游’라는 글자로 표출되진 않았으나, 孔子에 있어서 <游於藝>의 정신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論語』에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子路, 曾皙, 冉有, 公西華 등의 제자들이 孔子를 모시고 앉아 있었는데 孔子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예들아!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몇 살 많기로서니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느냐. 너희들이 특하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데, 만약 누가 너희를 알아주어 등용한다면 어찌하겠느냐?中略..... 點아! 네 뜻은 어떠하나? 曾皙이 옆에서 비파를 뜯고 있다가, 비파를 놓고 일어나서 말하였다. 저는 앞의 세 사람과 뜻이 다름

101) 徐復觀, 前揭書, p.49.

102) 李相殷, 前揭書, p.131.

103) 『論語』 「爲政」 4, 從心所欲 不踰矩.

니다. 무슨 상관이었느냐? 각자 자기의 뜻을 말해보는 것일 뿐인데 저는 늦은 봄에 봄옷이 다 만들어지면, 어른 대여섯 명과 아이 예닐곱 명과 함께 沂水에서 떡감고, 舞雩에서 바람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孔子는 아! 하고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點과 뜻을 같이 하노라.¹⁰⁴⁾

라고 하여, 曾皙은 다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였다. 曾皙이 보여준 세계는 이미 인위적인 의도나 욕구가 모두 제거된 본연의 상태이며, 여기서는 실천이니, 의무니, 목적이니 하는 개념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孔子가 깊이 탄식하여 曾皙의 뜻을 따르고자 한 것은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고 추구하던 세계와 일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추구한 세계는 앞서 말한 <游於藝>의 境地라고 하겠다. 이는 모든 대립적인 것이 조화, 통일되고, 그리하여 각 개인들이 모두가 밝아지고 자유로워지는 세계이며, 바로 孔子가 理想으로 한 세계였던 것이다.

쉴러¹⁰⁵⁾(J·C·F ·Schiller, 1759 - 1805)는,

인간이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때만이 遊戲가 있게 되며, 유희할 때만이 비로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⁶⁾

라고 하여, 인간에게 있어서 遊戲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遊戲라 함은 단순히

104) 『論語』 「先進」 25, 子路曾皙冉有公西華侍坐 子曰 以吾一日長乎爾 無吾以也 居則不吾知也 曰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者六七八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嘆曰 吾與點也.<曾皙 : 이름은 點, 字는 皙.>

105) 독일의 극작가, 시인으로 괴테와 함께 2대 문호라고 일컬어지며, 그의 작품에 일관된 흐름은 自由의 정신이다.

106) 徐復觀, 前揭書, p.48.

즐거움 그 자체이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유희 자체가 無目的的인 즐거움인 것이다. 그것은 현재 遊藝속에서 얻고 있는 快感이나 滿足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도 개재되지 않은 純粹한 活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理性이나 感性의 강요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調和의 상태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遊의 정신이야말로 예술의 근본정신이라고 하겠으며, 참 생명을 실현하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孔子의 理想은 時空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과 그러한 사회의 구현이었다. 그것은 단지 이성적 판단과 실천적 도덕만으로는 도달 될 수 없다고 孔子는 믿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그는 예술 또는 예술적 境界를 그토록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孔子가 추구한 <游於藝>의 境界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통일되어 모든 인위적인 의도나 욕구가 제거된 본연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V. 孔子의 音樂教育觀

1. 樂의 教育的 內容의 概觀

孔子와 그 門下生의 教育내용은 仁과 六藝이다. 음악은 周代의 教育 과목이었던 ‘六藝’중 하나였다. 六藝란 禮, 樂, 射, 御, 書, 數로 예, 음악, 활쏘기, 말타기, 글쓰기, 셈하기를 가리킨다.

孔子는 고대 중국 文化를 六部의 經典으로 정리하여 대중의 교재로 만들었는데 詩, 書, 禮, 樂, 易, 春秋이다.¹⁰⁷⁾ 詩는 情思를, 書는 世事를, 禮는 行實을, 樂은 情의 中和함을, 易은 陰陽의 理致를, 春秋는 名分을 각각 뜻하는 것이다.¹⁰⁸⁾ 孔子는 詩, 書, 禮와 더불어 ‘樂’을 중요한 教育 수단으로 삼았다.

孔子는 고대의 禮樂을 계승하여 음악을 중시하였다. 그 이유는 孔子 자신의 음악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음악이 갖는 특징 때문이었을 것이다. 『論語』에서 음악이 중요시되고 있되, 그것은 조화를 본질로 하는 음악을 통하여 君子의 조화로운 人格陶冶를 위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¹⁰⁹⁾

樂은 다음과 같이 인간의 심정의 발로로써 教育적, 윤리적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악의 원초적 계기가 인간의 심정적 발로에 있으며, 인간의 심정이 外界의 사물에 대해서 觸發되어 가동함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소리(聲)가

107) 張其的, 『孔子學說의 現代的 意義』 (서울: 螢雪出版社, 1981), p.31.

108) 馮友蘭, 『中國哲學史』, 柳昌勳(譯) (서울: 世音社, 1975), p.613.

109) 白琪洙, 孔子의 藝術思想, 『東洋學』 第11集, 1981, p.268.

상용 변화하여 이 변화가 곡조를 이루어音が 되고 이音を 배열하여樂器로 연주하여干戚羽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樂이라고 한다.¹¹⁰⁾

이 말은樂의 근원을 인간의 마음에 두고樂의 성립을 인간의心情→心情的感動→聲→音→樂의 다섯 가지 단계의 발전과정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樂의 근원요소라고 할音은 사람의 마음이事物에 감동되는 작용에서 나오는 것으로樂이 인간의 심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樂은 심정의 주체인 인간의 정신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인간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리하여孔子는 인간을 다스리고 교화하는데 있어樂이 그 최고방법이라고 하였다.

「樂記」篇에,

樂이란 마음의 움직임으로 일어나서 마지막에는 인간에게感化를 주고 여기에德이 높아진다. 따라서君子와小人은樂으로서 그 잘못된 점을 고치는바, 인간을教化하고 다스리는 길은樂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¹¹¹⁾

라고 하였다. 이렇듯 음악은 본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음악은 본성과 정서를 길러주기에 충분하므로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도 음악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음악교육의 가장 깊은 가치는 인간 감정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풍요롭게 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것이다.¹¹²⁾孔子는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으로 제자들에게 음악교육을 중

110) 각주 30참조.

111) 『禮記』 「樂記」樂象篇, 樂者心之動也 是故 情見而義立 樂終而德尊 君子以好善 小人以聽過 故曰 生民之道 樂爲大焉.

112) B. Reiner, 『音樂教育哲學』, 金鍾煥(譯) (서울: 學文社, 1990), p.69.

요시하였던 것이다.

고대 서양의 플라톤(Platon, B. C, 427-347)도 조화롭고 전인적 인격 형성과 나아가 이상적 국가의 실현을 위해 음악의 교화적 효과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곧 樂이 동, 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교육적 方便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孔子는 음악을 통한 인간 정신의 교화에 의한 교육적 내지 윤리적 효용성, 즉 인간의 심성을 中和시키고 원만한 인격을 도야하는 필수요소로서의 樂의 교육을 강조한 것이다.

2. 道德的 教化로서의 音樂教育

「樂記」에서 음악성립의 근원을 인간의 마음에 두고, 外物에 느껴져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 즉 情으로부터 聲이 발생하고, 聲이 서로 응하여 변화를 낳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 일정한 법칙성이 있게 되는 것을 音이라 하고 이 音이 조화를 이루어 樂이 성립된다¹¹³⁾고 하였다. 여기서 人心이 外物에 감동되는 작용(心之動) 즉 감정이야말로 음악의 근원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음악과 감정의 관계를 논한 곳이 많은데,

樂이란 情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¹¹⁴⁾

樂이란 人情상 없을 수 없는 것이다.¹¹⁵⁾

113) 각주 30참조.

114) 『禮記』 「樂記」 樂情篇, 樂也者 情之不可變者也.

115) 『禮記』 「樂記」 樂化篇, 夫樂也者 人情之所不能免也.

라고 하여, 음악은 인간의 心情의 發露로서, 불변하는 진리성을 갖고 있으며, 감정을 선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며, 외적 형식이 어떻든 간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감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 속에서 음악이 감정을 순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렇듯 樂에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 강하다는 생각을 근거로 하여 樂을 도덕적 감화의 효과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樂記」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情이 어떻게 아름답게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마음의 情이 깊어 樂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면 그 樂의 가락이 밝고 아름답다워지며, 心氣가 왕성하여 感化도 神처럼 크다. 이렇듯 和順의 德이 마음속에 쌓이고 榮華로운 樂이 밖으로 드러나면 위대한 感化를 주므로 오직 樂만은 거짓으로 할 수 없다. 116)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지적인 <氣盛→心氣가 왕성해짐>이란 음악에 의해 도덕성이 培養되는 단계¹¹⁷⁾로서 음악의 도덕적 교화를 강조한 것이다. 도덕적 교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간의 마음을 좋하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樂記」篇에는,

무릇 백성은 知覺하는 性質이 있으며 喜怒哀樂의 情이 있다. 이 情이 外物에 감동을 하면 움직여 변화가 생기고 마음의 의지할 길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급하고 가늘고 속이 타는 듯한 가락의 樂을 들으면 백성들이

116) 『禮記』 「樂記」 樂象篇, 是故情深而文明 氣盛而化神 和順積中而 英華發外 惟樂不可以爲僞.

117) 徐復觀, 前揭書, p.39.

憂愁에 빠지고 슬피하며 근심하게 된다. 느긋하고 평화스러우며 부드러운 樂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지며, 거칠고 격렬하며 노여움의 樂을 들으면 마음이 강직해지고 굳세진다. 곧고 바르고 정성스러운 樂을 들으면 마음이 엄숙, 경건해지게 되며 여유 있으며 맑고 부드러우며 순하게 이루어지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가락의 樂을 들으면 마음이 慈愛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방종에 흘러 치우치고 산만하고 간사한 樂을 들으면 마음이 淫亂해 진다.¹¹⁸⁾

라고 하여, 인간의 감정에 미치는 樂의 영향을 말하는 것으로 善한 樂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樂이란 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니, 그 근본은 人心이 物에 감응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슬픈 마음을 느끼는 자는 그 소리가 메마르면서 쇠미하고, 즐거운 마음을 느끼는 자는 그 소리가 걱정이 없으면서 완만하고, 기쁜 마음을 느끼는 자는 그 소리가 퍼지면서 흠어지고 성난 마음을 느끼는 자는 그 소리가 거칠면서 사납고, 공경하는 마음을 느끼는 자는 그 소리가 곧으면서 정도에 알맞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는 자는 그 소리가 온화하면서 부드럽다.¹¹⁹⁾

이 말은 樂이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밖으로 표현된 자연의 존재이며, 樂과 인간의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樂의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규정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구절이다. 즉 바르고 착한 감정을 표현한 樂은 그

118) 『禮記』 「樂記」樂言篇, 夫民有血氣之心之性 而無哀樂喜怒之裳 應感起物而動 然後心術形焉 是故志微噍殺之音作而民思憂 廉直勁正莊誠之音 作而民肅敬 寬裕肉好順成和動之音 作而民慈愛 流辟邪散狄成滌濫之音 作而民淫亂.

119) 『禮記』 「樂記」樂本篇, 樂者音之所由生也 其本在人心之感於物也 是故其哀心感者 其聲噍以殺 其樂心感者 其聲惝以緩 其喜心感者 其聲發以散 其怒心感者 其聲粗以厲 其敬心感者 其聲直以廉 其愛心感者 其聲和以柔.

자체가 옳하므로 그것이 갖는 조화, 질서가 인간 사회를 선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무릇 姦邪한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姦邪하고 거역하는 기운이 생겨나고 이것이 형상화되면 淫亂한 樂이 생겨난다. 이와 반대로 正聲의 소리가 마음을 움직이면 和順의 氣가 생기고 이것이 형상화되면 평화스러운 樂이 생겨난다. 그리하여 兩者가 서로 응하게 되면 邪惡한 氣는 淫樂을 낳고 和順의 氣는 雅樂을 낳게 하는데 萬物의 理致가 이러하다.¹²⁰⁾

라고 하여, 樂의 正直함과 奸邪함이 인간 마음의 善惡과 필연적인 대응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이리하여 孔子는 韶樂을 善美한 樂으로서 중요시하였고, 鄭나라의 樂은 淫蕩하다고 하여 싫어하였다.

『論語』에,

韶樂은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좋다”하고, 武樂은 “지극히 아름답지만 좋지는 못하다.”¹²¹⁾

라고 하였고,

韶樂을 들으시고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모르시며 “음악을 만드는 것이 이러한 경지에 이를 줄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¹²²⁾

120) 『禮記』 「樂記」 樂象篇, 凡姦聲感人 而逆氣應之 逆氣成象 而淫樂興焉 正聲感人 而順氣應之 順氣成象 而和樂興焉 倡和有應 回邪曲直 各歸其分而萬物之理 各以類相動也.

121) 각주 40참조.

122) 각주 39참조.

라고 한 내용은, 인간의 정신에 유익한 음악으로서의韶樂의 훌륭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 鄭나라의 음악이 雅樂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하며¹²³⁾

라고 하고, 顏淵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묻자,

.... 음악은韶舞를 할 것이며, 鄭나라 음악을 추방해야 하며 말재주 있는 사람을 멀리할 것이니, 鄭나라 음악은 음탕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위태로운 것이다.¹²⁴⁾

라고 하여, 인간의 정신에 有害한 음악을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나쁜 음악을 들으면 감정이 惡化되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 감정이 純化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樂은 인간의 도덕적 성격과 품행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樂을 통한 마음의 修身과 그로 인해 도달되는 境界에 관하여,

禮와 樂은 잠시도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樂의 본질을 깊이 연구하여 마음을 다스리면 平易하고, 바르며 慈愛롭고 선량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 즐겁고, 즐거우면 편안하고, 편안하면 壽命이 길어지며, 수명이 길면 그 德이 하늘과 같아진다. 그렇게 되면 神 즉 조화의 영묘한 작용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믿으며, 怒하지 않고도 威嚴이 서게된다. 이것이 이른바 樂의 본질을 알아서 마음을 다스린 效果이다.¹²⁵⁾

123) 『論語』 「陽貨」 18, ... 惡鄭聲之亂雅樂也 ...

124) 『論語』 「衛靈公」 10, ... 樂則韶舞 放鄭聲 遠佞人 鄭聲淫 佞人殆.

125) 『禮記』 「樂記」 樂化篇, 君子曰 禮樂不可斯須去身 致樂以治心 則易直子諒之心 油然而

라고 하여, 樂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인간이 그러한 도덕적 修身을 통하여 도달하는 세계는 단순히 인격의 완성이라는 차원을 넘어 天, 神과 合一되는 理想境界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樂의 도덕적 효용성을 인식한 孔子는 善한 樂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樂의 도덕적 기능은 사람의 善心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이상으로 樂의 도덕적 의미의 교화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첫째는 훌륭한 인격은 樂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善한 樂은 사람에게 善心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3. 政治的 教化로서의 音樂教育

儒家에서는 정치상의 교화적 측면을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 孔子는 禮樂과 刑政을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정치상에 있어서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樂이 정치적 교화로서의 음악교육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孔子는 正名(이름을 바로잡는것)을 말하는 자리에서,

“禮樂이 흥기하지 않으면, 刑罰이 제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¹²⁶⁾

라고 하여, 禮樂과 刑政이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樂

生矣 易直子諒之心生則樂 樂則安 安則久 久則天 天則神 天則不言而信 神則不怒而威 致樂以致心者也.

126) 『論語』 「子路」 3, 禮樂不興則刑罰不中.

記」에서는, 禮樂과 刑政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先王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있어 정치를 신중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禮로써 그 뜻을 이끌고, 樂으로써 그 소리를 화평하게 하고, 정치로써 그 행동을 한결같이 하고, 刑罰로써 사악함을 막았으니 禮樂刑政의 궁극의 목표는 하나이다. 즉 모두 民心을 하나같이 하여 治道를 이루는 것이다.¹²⁷⁾

라고 하여, 禮樂刑政이 각기 형태와 기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民心을 통일시키고 治國平天下를 이룩한다는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같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禮樂이 정치의 근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치와 樂이 통할 수 있음을 人心과 聲의 관계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무릇 音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감정이 마음속에서 움직이므로 소리로 나타나게 되고, 그 소리가 曲調를 이룬 것을 音이라고 한다. 이런 까닭에 治世의 音은 편안하고도 즐거운 가락을 가지는데 이는 정치가 화평하기 때문이며, 亂世의 音은 원망하며 분노에 차 있는 가락으로 이는 정치가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亡國의 音이 슬피하며 괴로운 가락이 있는 것은 그 백성이 困窮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聲音의 道와 정치는 상통하는 것이다.¹²⁸⁾

라고 하여, 聲音이 人心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정치도 人心에 영향을 미치기 때

127) 『禮記』 「樂記」樂本篇, 是故 先王慎所以感之者 故禮以道其志 樂以和其聲 政以一其行 刑以防其姦 禮樂刑政 其極一也 所以同民以而出治道也.

128) 『禮記』 「樂記」樂本篇, 凡音者生人心者也 情動於中故形於聲 聲成文謂之音 是故治世之音安以樂 其政和 亂世之音怨以怒其政乖 亡國之音哀以思其民困 聲音之道興政通矣.

문에 결국 聲音 즉 음악과 정치의 관계는 필연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서 治世의 음악과 亂世의 음악을 구별하여 살펴보자. 먼저 治世의 樂에 관하여 「樂記」篇에,

난폭한 백성이 일어나지 않고, 諸侯가 복종하여 兵革을 일으키지 않으며, 다섯 형벌¹²⁹⁾을 사용하지 않고, 백성의 근심이 없고, 天子가怒하지 않게 되는 것이 治世의 樂으로서 이러한 樂이 계속 天下에 널리 행해지는 것이다.¹³⁰⁾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亂世의 樂은 「樂記」篇에,

荒廢한 땅에는 草木이 자라나지 않고, 물이 소란하게 흐르는 곳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으며, 陰陽의 氣가 쇠하면 생물의 발육은 그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禮는 中正을 잃고 樂은 淫亂해진다. 그러므로 亂世의 樂은 슬프고 장엄하지 못하며 享樂에 빠져 안정되지 못한다. 또한 그 소리가 느슨해지면 姦邪한 마음이 생겨나며 급하면 욕망을 자극한다. 따라서 高潔한 인격자는 그것을 賤하게 여기는 것이다.¹³¹⁾

鄭나라, 衛나라의 음악은 亂世의 음악이니 慢에 가까우며, 桑間濮上¹³²⁾

129) 五刑: (墨: 얼굴이나 팔뚝에 흙을 내어 죄명을 찍어 넣는 형벌)·(劓: 코베는 형벌)·(剕: 발뒤꿈치를 베는 형벌)·(宮: 남자는 거세하고 여자는 幽閉하는 형벌)·(大辟: 사형).

130) 『禮記』 「樂記」樂論篇, 暴民不作 諸侯賓服 兵革不試 五刑不用 百姓無患 天子不怒 如此則樂達矣.

131) 『禮記』 「樂記」樂言篇, 土敝則草木不長 水煩則魚鼈不大 氣衰則生物不遂 世亂則禮慝 而樂淫 廣則容姦 狹則思欲 感條暢之氣 滅平和之德 是以君子賤之也.

132) 桑間濮上: 濮水의 물가 뽕나무 숲 사이. 복수는 黃河로 춘추시대의 위나라 지역에 있다. 이곳은 옛날 은나라의 악사인 延이 紂王의 명을 받고 음란한 음악을 지었다가 武

의 음악은 亡國의 음이니, 정치가 산만하고 백성이 방종에 흘러, 윗사람을 속이고, 私欲을 행해도 이를 막을 수 없었다.¹³³⁾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치가 어지러우면 그 음악도 어지러운 것이다. 이리하여 孔子는 鄭나라의 樂을 亂世의 樂이라고 하여 이를 멀리하고 韶樂을 따를 것¹³⁴⁾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孔子가 정치에 있어서 음악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는 음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했으며, 따라서 불건전한 음악을 추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樂記」篇에는, 소리와 정치를 연결 지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宮은 군주요, 商은 신하요, 角은 백성이요, 徵는 민사요, 羽는 재물이니, 이 다섯 가지 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조화되지 않는 음이 없다. 그러나 만약 宮음이 어지러우면 그 소리가 거칠고 사나운데 이는 군주가 교만하기 때문이고, 商음이 어지러우면 그 소리가 바르지 못하고 기울어지는데 이는 臣下가 그 도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角음이 어지러우면 그 소리가 근심스러우니 이는 백성이 원망하기 때문이며, 徵음이 어지러우면 그 소리가 슬프니 이는 백성이 살아가는 일이 괴롭기 때문이고, 羽음이 어지러울 때는 소리가 위급한데 이는 財物이 걸꺾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섯 소리가 모두 어지러울 때는 서로 다투며 시새움하는데 이를 慢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머지 않아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¹³⁵⁾

王이 주왕을 정벌하자 투신하여 죽은 곳이다.

133) 『禮記』 「樂記」樂本篇, 鄭衛之音 亂世之音也 比於慢矣 桑間濮上之音 亡國之音也 其政散其民流 誣上行私而不可止也.

134) 각주 124참조.

135) 『禮記』 「樂記」樂本篇, 宮爲君 商爲臣 角爲民 徵爲事 羽爲物 五者不亂 則無恬慝之音矣 商亂則荒其君驕 羽亂則危其財匱 五者皆亂迭相陵謂之慢 如此則國之滅亡無日矣.

라고 하였다. 이는 중국의 기본음계인 5음 음계의 宮, 商, 角, 徵, 羽의 관계를 정치와 서로 연결 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五音を 정치에 비유한 것으로 이 또한 정치와 樂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樂記」篇에,

先王¹³⁶⁾이 樂을 제작함에 있어 백성의 性情에 감동하는 음에 근거하여 五聲十二律을 생각하고, 禮義를 제정하였다. 그런 후에 天地의 和氣에 부합하고, 五常¹³⁷⁾을 바르게 인도하여 陽으로 하여금 흠어지지 않게 하고, 陰으로 하여금 密閉되지 않게 하고, 剛氣가 이겨도 노하지 않고, 柔氣가 이겨도 두려워하지 않게 했다. 이 네 가지(陰, 陽, 剛, 柔)를 고르게 하여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밖에 드러날 때는 五音¹³⁸⁾이 각각 제자리에 편안하여 서로 질서를 빼앗지 않게 하였다. 그런 후에 樂의 學官과 科程을 세워, 그 학자가 익히는 節奏를 늘이고, 그 音曲을 省察하여 서로 조화시켜서 백성의 德을 세워 간사하고 못된 데로 흐르지 않게 한다. 또 五音의 大 · 小 의 균형을 고르게 하고 가락의 終始의 순서를 정하였다. 그것으로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을 상징하여 인간사회의 親疎 · 貴賤 · 長幼 · 男女가 행해야 할 도리를 모두 樂에 나타나게 했다. 그러므로 樂은 그 뜻이 심오한 것이다.¹³⁹⁾

라고 하여, 天地의 理法을 樂속에 실현시켜 이를 인간사회와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내용으로 樂을 정치교화의 도구로 강조하게 되는 思考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또한 음악과 정치와의 관계에 대하여 「樂記」篇에,

136) 中國 太古의 이상적인 聖德을 가진 堯, 舜, 禹의 三代聖君.

137) 五常: 仁, 義, 禮, 智, 信.

138) 宮, 商, 角, 徵, 羽.

139) 『禮記』 「樂記」樂言篇, 是故先王本之性情 稽之度數 制之禮義 合生氣之和 道五常之行 使之陽而不散 陰而不密 律小大之稱比終始之序 以象事行 使親疎貴賤長幼男女之理 皆形見於樂 故曰 樂觀其深矣.

무릇 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樂이란 윤리와 통하는 것이다. 때문에 聲만을 알고 음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같고, 음만을 알고 樂을 알지 못하는 것은 못사람들이다. 오직 君子만이 능히 樂을 안다. 그러므로 聲을 살피어 음을 알고, 음을 살피어 樂을 알고, 樂을 살피어 정치를 알아서, 治道를 갖추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聲을 알지 못하는 자와는 더불어 음을 말할 수 없고, 음을 알지 못하는 자와는 더불어 樂을 말할 수 없으니, 樂을 알면 禮에 가깝게 된다. 그러므로 禮樂 두 가지를 다 알아서 몸에 체득한 자를 有德者라 한다.¹⁴⁰⁾

라고 하여, 여기서 <聲> → <音> → <樂> → <政>이라는 서열이 성립된다. 따라서 聲, 音, 樂의 이치를 안 다음, 정치의 구현으로 사회의 질서는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는 禮樂을 터득한 有德者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禮樂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先王이 禮樂을 제작한 취지에 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樂記」篇에,

先王이 禮樂을 제정함은 입과 배와 귀와 눈의 욕구를 극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禮樂)을 가지고 백성으로 하여금 좋고 싫음을 공평하게 하도록 가르쳐 바른 人道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¹⁴¹⁾

라고 하였다. 이는 다시 말하면 즐거워하는 것, 즉 바른 쾌락의 추구는 인간이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고, 즐거워하면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것이 道에 바르게 맞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게

140) 각주 61참조.

141) 『禮記』 「樂記」樂本篇, 先王之制禮樂也 比以極口腹耳目之欲也 將以教民平好惡 而反人道之正也.

되는 것이다. 옛 聖王은 이와 같이 혼란이 생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으므로 雅樂을 제정해서 바른 道에 맞도록 이끌고, 그 樂이 아무리 즐겁다 해도 방종에 흐르지 않도록 하고, 그 音曲의 흐름과 구성이, 사람들을 오직 善으로 향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고, 방자한 마음과 사악한 기분이 생길 여지가 없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先王은 樂을 제정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樂記」篇에,

樂이라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이니, 이는 人情상 면치 못하는 것이다. 즐거워할 때에는 반드시 聲音에 발현되며, 動靜(춤)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있는 일이다. 聲音과 動靜은 性情이 사물에 감동하여 그 변화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즐거움이 없을 수 없고, 이것은 밖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를 바른 道理로 引導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마음이 어지럽게 된다. 그리하여 先王이 그 어지러워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에 바르고 우아한 소리를 만들어 인도하였다. 그 소리로써 즐거워하게 하나 放蕩으로 흐르지 않게 했으며, 그 樂章의 意義를 講論하게 하여 善한 방향으로 나아감을 중단하는 일이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소리의 柔한 것과 強한 것, 소리의 잡된 것과 순수한 것, 또한 소리의 맑은 것과 탁한 것의 曲節의 변화로써 사람의 착한 마음이 생기게 하고, 방탕한 마음과 사악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였다.¹⁴²⁾

라고 하였다. 이는 인간이 감정이 있는 한 樂은 없을 수 없는 것이며, 樂에는 사람의 性情, 소리, 動作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감정이 형성되고 밖으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짐을 걱정하여 이를 바르게 하려고 樂을 제정했

142) 『禮記』 「樂記」樂化篇, 夫樂者樂也 人情之所不能免也 樂必發於聲音形於動靜 人之道也 聲音動靜性術之變 盡於此矣 使其曲直繁瘠廉肉節奏 足以感動人之善心而已矣 不使放心邪氣得接焉 是先王立樂之方也.

다는 것이다.

또한 先王이 樂을 제정한 취지로 「樂記」篇에,

樂이 宗廟 안에서 君主와 臣下가 함께 들으면 화평, 공경하지 않음이 없고, 村里 안에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 들으면 和順하지 않음이 없으며, 집 안에서 부자, 형제가 함께 들으면 和親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樂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서 조화된音を 정하고, 여러 樂器를 비교하여 音節을 다듬어서 이를 節奏하여 音聲을 합성시켜 燦然한 멋을 이루는 것으로, 父子, 君臣을 화합하게 하고, 萬民을 따르게 하고 친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先王이 樂을 제작한 방법이다.¹⁴³⁾

라고 하여, 禮樂에 의한 정치적 교화로 인해 萬民이 서로 화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樂記」篇에서는 禮樂의 정치적 교화를 강조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樂은 德을 상징하고, 禮는 음란을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先王이 大事(喪事)가 있게 되면 반드시 禮로써 애도하고, 大福이 있게 되면 반드시 禮로써 즐거워 하니, 哀樂의 分限에 모두 禮로써 마친다. 樂이라는 것은 聖人の 즐거워하는 바이다. 이것에 의하여 민심을 착하게 만든다. 사람을 깊이 감동시키고 풍속을 바꾸는데 있어 樂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그러므로 先王이 樂의 교육을 진흥시키고 백성을 교화하였다.¹⁴⁴⁾

143) 『禮記』 「樂記」 樂化篇, 是故 樂在宗廟之中 君臣上下同聽之 則莫不和敬 在族長鄉里之中 節奏合以成文 所以合和父子君臣 附親萬民也 是先王立樂之方也.

144) 『禮記』 「樂記」 樂施篇, 樂者所以象德也 禮者所以綴淫也 是故 先王有大事必有禮以哀之 樂也者聖人之所樂也 而可以善民心 其感人深 其移風易俗 故先王著其教焉.

라고 하여, 이는 民心을 선도함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과 풍속을 바꾸는 것을 樂의 중요한 기능으로 들고 있다. 先王은 바로 이러한 음악의 교화적 기능을 잘 인식하였기 때문에 음악교육을 중요시하였다는 것이다. 음악의 移風易俗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樂記」의 다른 곳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樂이 행하여지면 윤리가 맑아져서耳目이 총명해지며 혈기가 화평하게 되니, 풍속이 바뀌어 천하가 모두 편안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君子가 바른 性情으로 돌아가 그 뜻을 화평하게 하여 樂을 행하면 백성들이 바른 길로 향하게 되어 진정한 즐거움을 얻기에 이르는데, 이렇게 해서 爲政者의 훌륭한 德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⁴⁵⁾

라고 하였다. 이처럼 음악이 移風易俗하는 교화적 기능을 가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은 모든 인간을 和樂하게 하여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입장에서부터 바르고善良的 음악을 널리 사회에 행하게 함으로써 교화를 완성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을 엿볼 수 있다.¹⁴⁶⁾

儒家의 정치사상에서는 먼저 교화가 강조되고 그 중에서도 樂敎가 가장 중시됨을 알 수 있겠거니와 이러한 음악의 교화적 기능은 바로 정치적 효과로 연결되는 것이다.

요컨대, 孔子는 민심을 바르게 하고, 풍속을 바꾸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樂의 기능 및 효과를 두었다. 즉 정치적 이념의 실현을 樂에서 기대하였던 것이다.

145) 『禮記』 「樂記」樂象篇, 故樂行而倫清 耳目聰明 血氣和平 移風易俗 天下皆寧 是故君子 反情以和其志 廣樂以成其敎 樂行而民鄉方 可以觀德矣.

146) 李相殷, 儒家의 禮樂思想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0), p.141.

4. 人格完成으로서의 音樂教育

孔子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인간이었으며, 또한 그들의 삶의 모습도 바로 그것이었다.¹⁴⁷⁾ 그래서 그는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본질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으며,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숨쉬고자 했다.¹⁴⁸⁾ 그의 이러한 노력은 仁으로 실현되고, 仁은 결국 인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孔子가 즐긴 음악은 仁을 바탕으로 하는 樂이었다. 孔子가 樂을 즐긴 것은 그가 인격을 완성하는데 樂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樂이 인간에게 내재하는 仁의 정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인격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즉 孔子가 樂이 형성단계에서부터 仁을 근거로 해야함을 말한 이유는, 仁을 내용으로 하는 樂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仁을 자각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仁을 자각하는 것은 인격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孔子는 樂을 통해 인간에게 내재하는 도덕심인 仁을 자각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격의 완성을 이루게 하려 했던 것이다.

孔子는 『論語』에서,

詩에서 感興을 일으키고, 禮로써 행동규범을 세우고, 樂으로써 인간을 완성시킨다.¹⁴⁹⁾

라고 하였다. 맨 처음의 출발점에 詩가 있고, 그 다음에 禮를 공부하며 마지막으로 音樂으로 인격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제자들에 대한 孔子의 교육과

147) 『論語』 「先進」 11, 季路問事鬼神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 敢問死 未知生 焉知死.

148) 『論語』 「微子」 6, ... 鳥獸不可與同群 吾非斯人之徒與而誰與 天下有道 丘不與易也.

149) 각주 59참조.

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선 詩의 문구를 가르친 뒤, 禮의 형식을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樂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 완성의 최종 단계에 음악을 놓음으로써 음악을 통해 인간 완성이 마무리되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음악이 그 정도로 강조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詩와 禮와 다르게 音樂의 기능을 매우 크게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孔子가 이토록 音樂을 중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앞서 논급하였듯이 仁과의 관계에서 연유한다. 孔子는 인간성 즉 仁에 바탕하지 않은 음악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이는 孔子가 자각하여 發現한 새로운 예술 정신으로서 예술은 다만 인간정신의 발현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예술을 통하여 인간정신을 발현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孔子는 인간의 완성을 의미하는 仁의 실현이 이러한 음악을 통해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孔子는 사람들로 하여금 ‘仁’을 실행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內心の 감정상태에 仁에 대한 자각적인 요구가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자각적 요구는 인간의 情感을 실현해 주는 예술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孔子는 음악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면 「成於樂 — 인간완성이 음악의 경지에서 이루어진다」의 의미는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그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成仁於樂 — 樂에서 仁을 이룬다」 또는 「成人於樂 — 樂에서 인간을 완성한다」이다. 즉 孔子가 말하는 「成於樂」은 음악의 학습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사람이 樂을 감상하면서 그 仁을 완성하는 일을 즐겁게 실천하도록 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말하고 있다. 樂은 즐거움을 통해 인격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하고, 인격의 완성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孔子는 子路가 成人(완성된 인간)을 물었을 때,

臧武仲의 지혜와 公綽의 탐욕하지 않음과 卞莊子의 용기와 冉求의 才藝에, 禮樂으로써 文彩를 낸다면 이 역시 成人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⁵⁰⁾

라고 하였다. 이는 결국 인간이 지혜, 無慾, 용기, 재능 등을 겸비하고 있어도 禮樂의 학습을 통하지 않고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인간완성과 禮樂은 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禮는 단적으로 말하면 의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사회에 속해 있다는 귀속의식을 가르치지만, 내면적인 감정까지 교육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서를 온화하게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孔子는 그 수단으로 음악을 생각했다.

孔子에 있어서 최대의 목표가 인간의 완성에 있었으며, 음악은 거기에 이르는 데 동반한 반려자였다. 다시 말해서 그의 생활 자체가 음악적이었다고 본다.

孔子가 음악에 대해 관심을 쏟고, 음악을 감상하고,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이 단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음악교육을 실행해서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심성을 陶冶받게 되고 각자의 인격을 완성하게 하여, 일종의 仁愛精神이 가득 찬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孔子는 禮樂을 수단으로 하여 인간성(仁)의 실현을 통한 온전한 인격의 완성과 그로 인하여 질서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친밀한 감정까지 배양하게 하여 군주와 신하와 백성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善良的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다.

150) 각주 74참조.

VI. 結 論

본 논문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 가능한 孔子의 禮樂思想에 대하여 종래 철학 쪽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치우쳐 연구되어온 것과는 달리 音樂論 쪽에서 접근하여 연구 탐색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해서 孔子가 말씀하신 것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가히 스승이 될 수 있다.”¹⁵¹⁾고 하였다. 이는 옛것을 모범으로 삼아 새것을 창조하는 즉 과거 속에서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儒家의 음악사상 즉 孔子의 禮樂思想을 통해 이웃나라인 중국 음악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우리의 전통사상이나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며 한국의 서구 중심의 음악 문화적 상황을 극복해야 할 하나의 문제점으로 보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조그마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나름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禮樂思想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본 결과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대 중국을 지배한 음악관은 유교에 바탕을 둔 禮樂思想으로서 禮와 樂은 항상 禮樂으로 並稱되어 왔다. 孔子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禮樂을 계승하면서 처음으로 이론화, 체계화, 합리화 한 중국 유가 음악사상의 정초라 할 수 있으며, 춘추시대의 혼란기에 살면서 그 당시 사회의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周시기에 융성하였던 禮樂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151) 『論語』 「爲政」 11, 子曰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둘째, 禮와 樂은 상반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禮樂’이라는 統體的 차원으로 융해될 때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질적으로 樂은 조화의 원리이며, 禮는 질서 내지 節度의 원리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樂은 人情, 禮는 事理를 문제삼았다. 기능적 실현에 있어서 樂은 同和가운데로 통일시키고, 禮는 차이를 분별하여 질서 지우는 것으로 집약되었다. 이러한 통일과 질서를 찾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현상이므로, 禮와 樂이 人情에 바탕을 두고 그것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하였다. 즉 기능적 성격이 다르지만 사회적 실현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보았다.

셋째, 孔子는 철학자이자 정치가이며 교육자였으므로 매우 넓은 각도에서 음악을 볼 수 있었으며 음악에 대해 상당한 실천과 지식이 있었다. 孔子는 樂器의 조작은 물론 古樂에 대한 감상과 비평 능력을 지닌 훌륭한 음악인이었다. 孔子의 일생은 음악과 늘 함께 하였고, 음악에 대한 전문가 이상의 소양과 능력은 물론 음악의 기능과 가치를 인식한 고도의 審美的 교양을 갖춘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孔子에 있어서 훌륭한 음악은 참다운 인간성에 바탕을 둔 위대한 인격정신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참다운 인간성은 詩, 禮, 樂이라는 예술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며, 이러한 樂의 궁극적 목적은 <和>인 것이다. 樂은 天地의 調和이며 더 나아가서 宇宙의 調和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孔子의 음악철학은 美로서의 樂과 善의 최고 실현인 仁의 통일에 있으며, <游於藝>라 하여 道와 德, 仁 등의 諸概念을 조화롭게 연결하고 융합, 통일하여 도덕적 규범성과 예술적 자유성이 조화롭게 통일되어 모든 인위적인 의도나 욕구가 제거된 본연의 상태에서 樂을 즐겼던 것이다.

다섯째, 孔子의 교육내용은 六藝와 仁이었다. 그는 조화를 본질로 하는 음악을 통한 有德者로서의 君子의 조화로운 人格陶冶를 위한 방편으로써 음악교육을 중

요시하였으며, 또한 樂에 의한 도덕적, 정치적 교화를 강조하였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한 힘이 있어 좋은 음악을 들으면 감정이 純化되고, 나쁜 음악을 들으면 감정이 惡化된다. 따라서 樂의 도덕적 교화는 樂을 통해 훌륭한 인격과 인간의 善心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樂은 그 나라의 정치를 나타내는데 나라가 안정되면 樂도 듣기에 편안하고 조화로우며, 나라가 불안하면 樂도 듣기에 불안한 것이다. 그러므로 先王은 이와 같은 樂의 원리를 따라서 정치를 하였으며, 특히 樂의 정치적 교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成於樂>이라 하여 인격 완성의 최종단계를 樂에 두어 樂의 교화를 중요시하였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자면 儒家의 禮樂에서는 인간적인 체험과 共感 그리고 인간성 내지는 인격성의 구현이 중시된다. 이미 전술하였듯이 禮樂이라고 할 때 禮와 樂이라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이 둘이 조화 통일된 統體的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禮에는 예술성과 종교성이 구비되어 있지만 역시 합리적 이성과 실천적 도덕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므로 질서와 분별을 목표로 하고, 樂은 따뜻한 情感과 자유로운 예술성을 추구하므로 조화와 통일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禮樂思想을 통한 조화로운 음악생활화 교육을 통하여 그 동안 상실되어왔던 인간성을 회복 할 수 있도록 知·情·意가 고루 갖추어지도록 미적 체험과 표현능력을 길러내는 음악교육을 함으로써, 조화로운 인간을 육성시키는 교육을 재인식하여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全人教育의 一環으로써 음악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현대에 있어서도 충분한 음악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孔子의 禮樂思想에 관한 연구는 부진했던 것 같다. 앞으로 孔子의 음악적 측면의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經集類>

- 大東文化研究院. (1970). 『經書(四書章句集註大全)』. 서울 : 成均館大出版部
- _____. (1979). 『五經集註大全. 全5冊』. 서울 : 景文社.
- 南晚星 譯. (1976). 『四書五經 全12卷』. 서울 : 平凡社.
- 김원중 譯. (2002). 『史記』. 서울 : 乙酉文化社.
- 김학주 譯. (2001). 『荀子』. 서울 : 乙酉文化社.
- 李基東 譯. (1999). 『論語講說』. 서울 : 成均館大出版部.
- 李基東 譯. (1997). 『周易講說』. 서울 : 成均館大出版部.
- 이민수 譯. (2003). 『孔子家語』. 서울 : 乙酉文化社.
- 儒教辭典編纂委員會. (1990). 『儒教大辭典』. 서울 : 博英社.
- 鄭太鉉 譯. (2001). 『春秋左氏傳』. 서울 : 傳統文化研究會.
- 조남권. 김중수 共譯. (2001). 『樂記』. 서울 : 민속원.
- 池載熙 譯. (2000). 『禮記』. 서울 : 자유문고.

<單行本>

- 江文也. (2001). 『古代中國正樂考』. 鄭和子 譯. 清州 : 清州大學校出版部.
- 김영. (1998). 『論語를 읽는 즐거움』. 서울 : 韓國學術情報(株).
- 馮友蘭. (1975). 『中國 哲學史』. 柳昌勳 譯. 서울 : 世音社.
- B. Reiner. (1990). 『音樂教育哲學』. 金鍾煥 譯. 서울 : 學文社.

- 徐復觀. (1990). 『中國藝術精神』. 權德周 譯. 서울 : 東文選.
- 송방송. (1989). 『東洋音樂概論』.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양인리우. (1999). 『中國 古代 音樂史』. 이창숙 譯. 서울 : 솔출판사.
- 유덕희. (1997). 『世界音樂教育史』. 서울 : 학문사.
- 劉明鍾. (1983). 『中國思想史』. 大邱 : 以文出版社.
- 栗原圭介. (1978). 『中國古代樂論의 研究』. 東京 : 大東文化大學 東洋學研究所
刊.
- 李相殷. (1981). 『儒學과 東洋文化』. 서울 : 汎學圖書.
- 李澤厚. 劉綱紀. (1992). 『中國美學史』. 서울 : 大韓教科書株式會社.
- 한만영. 전인평. (1999). 『東洋音樂』. 서울 : 삼호출판사.
- 張其的. (1981). 『孔子學說의 現代的 意義』. 서울 : 螢雪出版社.
- 藏原惟人. (1991). 『中國 古代 哲學의 世界』. 김교빈 外 譯. 서울 : 한울 아카
데미.

<學術志>

- 金榮旭. (1999). 心性論의 側面에서 본 「樂記」의 樂論. <音樂과 民族>. 第18
號.
- 都民宰. (2003). 孔子 禮樂思想의 哲學的 基盤. <韓國의 禮節>. 第5號.
- 都民宰. (2003). 孔子 禮樂思想의 本質과 社會的 理想. <東洋哲學研究>. 第34
集.
- 民族音樂研究所. (1991). 『禮記』 「樂記」의 '樂本篇'. <音樂과 民族>. 第2號.
- 民族音樂研究所. (1992). 『禮記』 「樂記」의 '樂論篇'. <音樂과 民族>. 第4號.
- 民族音樂研究所. (1993). 『禮記』 「樂記」의 '樂禮篇'. <音樂과 民族>. 第5號.

- 民族音樂研究所. (1994). 『禮記』 「樂記」 의 '樂施篇'. <音樂과 民族>. 第7號.
- 民族音樂學會. (1996). 『禮記』 「樂記」 의 '樂言篇'. <音樂과 民族>. 第11號.
- 民族音樂學會. (1997). 『禮記』 「樂記」 의 '樂象篇'. <音樂과 民族>. 第14號.
- 白琪洙. (1981). 孔子의 藝術思想. <東洋學>. 第11集.
- 呂基鉉. (1998). 中國古代 樂論研究 - 儒. 道家를 中心으로. <泮橋語文研究>. 第9集.
- 오금덕. (2002). 當代 中國 古代 音樂美學思想 研究 現況. <音樂과 民族>. 第24號.
- 이기정. (1996). 音樂哲學의 理解. <音樂과 民族>. 第11號.
- 李相殷. (1984). 樂記의 音樂論에 관한 考察(I). <東洋哲學研究>. 第5集.
- 林美善. (1991). 中國古代音樂美學思想 - 先秦. 魏晉南北朝. <民族音樂學>. 第13集.
- 林泰勝. (1998). 禮樂의 形式上에 나타난 象徴的 機能. <儒教思想研究>. 第10集.
- 조영배. (2001). 音樂의 本性으로 본 禮樂思想과 韓國文化. <韓國의 禮節>. 第3號.

<學位 論文>

- 金鍾富. (1987). 孔子와 플라톤의 音樂教育思想研究. 碩士學位論文, 漢陽大學校 教育大學院.
- 朴駱圭. (1983). 古代 中國의 禮樂思想 : 「樂記」를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 梁勝禧. (1992). 樂記 樂理思想의 哲學的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

學院.

柳七魯. (1978). 孔子的 時中之道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李相殷. (1980). 儒家의 藝術思想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李相殷. (1990). 儒家의 禮樂思想에 관한 研究 : 藝術論的 理解를 中心으로.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林泰勝. (1992). 孔子 禮樂思想의 美學的 考察.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鄭元教. (1995). 孔子的 藝術精神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鄭台喜. (1990). 孔子的 藝術精神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大田大學校 大學院.

崔英辰. (1977). 中和思想의 哲學的 探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韓枝守. (1999). 孔子와 「樂記」에서의 人性과 樂의 問題. 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許正和. (2000). 「樂記」에 나타난 音樂思想에 관한 研究 : 荀子와 정약용의 樂論과 비교하여.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ABSTRACT

A Study for Ideology of Confucian Music in Ancient China.

- focused on the Li-Yue thought of Confucius -

Lee, Hye Kyung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mong the many possible viewpoints with which to approach the teachings of Confucius, this thesis, unlike many of the studies that focused on the philosophical and ethical aspects, centered on the masters music theory. For a more in-depth study, it is imperative that we remember the words of the great master.

Reviewing what you have learned and learning anew, you are fit to be a teacher. According to Yeonam Park Ji-won, these words preached to create the new based on the model of the old and in China, this quote was interpreted to mean that remembering the old was the teacher of future. Both interpretations are thought to mean similar things. However, reviewing the

old does not always lead to the learning and creation of the new. What is required is the eye to see the future in the past.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 music thought of Confucius was sidelined and marginalized by Western music. In the 21st century, we must reinterpret the music theory of Confucius which set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e music philosophy or music education, so this thesis explored the Li-Yue thought of Confucius.

The human has to be a harmonic human being formed of the intelligence, the feeling and the meaning equally, this is namely the aim for the whole human education. But actually the present our music education is for a majority of the technical and intellectual education, not an education to make us feel the music. At this point of view, Confucius was a talented music instructor. He materialized the whole human education, which we can infer from the famous phrase "Inspired by poetry, behave oneself by propriety, build up one's personality by music" that he set a high value on music as a mean to access supremacy of humanity. All in all, he had a view that man could be perfect by mastering music.

Like this, Confucius thought much of music as a basis to develop positive personalities and recognized that music is a materialization of jen. Also he emphasized the role of virtuous human education from the cultivation of the moral character and the emotional training with music, from the social, national civilization.

Accordingly, the 2nd chapter consider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onfucian music theory and the interrelation of 'Li'(propriety) and

'Yue'(music) through the Li-Yue thought.

The 3rd chapter dealt with his critical point of view and appreciation, music life in the part dealing with the masters aesthetical view on music.

The 4th chapter dealt with his musical view approached from the poetry and Li(propriety), harmony as a music, the his unity idea of aesthetics and the good in music and jen respectively and an ideal world in art.

Finally, the 5th chapter concentrated on his idea about music education of ethical, political civilization and building up one's personality through the music education. His musical thought will recover the humanity that lost by the present industrial society of non-humanity and non-morality and form of the harmonic human.

Despite his high appraisal and its superiority on music today, the value of the confucian Li-Yue thought has been underestimated so far and the studies in this field was not enough.

Therefore, I hope further and deep studies will be done in the year to come.